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 news@snuaa.org



제309호 2020년 1월 SNU Alumni Asso. USA |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 발행인: 신응남 편집인: 오치주



신응남 회장 신년사

2020년 庚子年 새해를 맞으며

올해는 경자년 쥐띠의 해이며 또한 서양력으로는 2020년 20이라는 숫자가 두 번 겹치는 백 년에 한번 오는 특별한 해이다. 상서로운 2020년에 우리들의 소망은 무엇인가? 또한, 이 시대의 요구는 무엇인가? 시대의 변화를 읽고 대처하는 국가와 민족은 이 지구상에 영존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21세기가 깊어감에 따라, 시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범위와 영향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는 AI의 약진을 예견하며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간과 인간은 소통의 단절로 이어지며,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불확실한 미래가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또한, 의학의 발전으로 연장되는 인간의 수명으로 인해 확대되는 사회적 요구에 우리는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높은 도덕률인 양심과 숭고한 이성을 추구하며, 그것을 지켜나가는 인간의 정취가 물씬 묻어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보다 요구될 것이다. 진리의 도달은 공정한 과정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공정한 과정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해주는 민주주의라는 높은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

19세기 프랑스 철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은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라고 했다. 지성인의 모임인 우리 동창회는 그 구성원 수준에 맞는 동창회를 꾸려 나갈 책임과 권리가 있다.

새로운 시간은 우리에게 새 각오를 다짐하는 열정을 준다. 경자년 새해 우리 동창회의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각 지역동창회

는 우수한 교육의 특혜를 입은 미주 동문들이 그가 선 자리에서 거룩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에 따르는 특권을 누리기를 바란다.

더하여, 미주동창회 회보를 통하여 소통하며, 높은 이상과 비전을 공유하며, 동문들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하게 세워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함께 모여 기쁨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광장, 서울대 클럽을 이 땅에 세울 것을 염원한다. 그리고 뒤에 오는 후배들에게 그 전통을 유산으로 면면히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 금년 한 해에도, 동문 여러분과 가정에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15 대 서울대 미주 동창회 회장

버뮤다크루즈(제29차 평의원회의) 등록마감 - 2020년1월15일

<관련기사 21면>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아래의 주소로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신년인사 /

새로운 100년을 향한 첫 걸음



신수정
(서울대 총동창회장)

극 지원했습니다. 지난 한 해 재학생 1,300여 명에게 장학금 총 37억원을 지급해 면학을 독려하고, 노벨상을 꿈꾸는 젊은 교수들이 과감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교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연구 성과가 나온다면 본국의 동문은 물론 해외에 계신 동문들의 자부심도 더욱 커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흔히 50주년을 마라톤의 반환점에 비유합니다. 반환점을 돌 때의 마음가짐과 페이스 조절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반환점을 통과한 이후부터가 진짜 레이스라고도 합니다. 총동창회 또한 반환점을 돌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기틀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은 동창회가 50주년을 자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 시간을 경허하게 돌아보며 더 단단하게 밑바탕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문들의 화합을 이끌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서울대인은 하나이며, 미래일이 아니라 하는 것을 증명하듯 지난 시간처럼 총동창회는 앞으로도 수많은 동문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전심으로 모교를 돕고자 합니다.

올해는 신임 회장 선출이라는 중대한 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 동문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총의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전임 회장님들의 자랑스러운 업적이 차기 회장님까지 면면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저 또한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0년간 서울대총동창회는 서울대인의 자력에 힘입어 발전해 왔습니다. 2020년 경자년에도 동문들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미주 동문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미주동창회의 발전과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지난해 서울대총동창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 뜻깊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동문 여러분의 응원과 도움 덕분에 총동창회가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멀리 미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응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뉴욕에서 열린 미주동창회 평의회의에 찾아뵈었을 때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고, 가을에는 미주 동문들께서 홈커밍데이를 맞아 뽕소 모교를 찾아 주셨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 진한 모교 사랑과 뜨거운 성원을 보여주시는 미주 동문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창립 50주년을 축제의 해로 기억되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걸맞게 지난 1년간 많은 기념 행사를 준비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기념 음악회에는 역대 동문과 재학생들이 재능 기부로 품격 있는 공연을 보여주었고 1,0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해 환호를 보냈습니다. 미대 동창회와 함께 미술대학 대표 작가들의 작품으로 자선 경매전을 열어 장학금을 마련했으며, 기념 공연으로 열린 연극도 많은 동문들이 찾아 주셨습니다. 홈커밍데이는 크루즈 여행권을 협찬해 주신 미주동창회를 비롯해 많은 동문들이 후원해 주셔서 더욱 성대한 잔치날이 되었습니다.

모교의 동반자로서 연구와 교육도 적

/ 신년사 /

새해를 맞이하며



박윤수
(초대회장)

눈을 뜨니
오늘은 새해의 첫날
한 살 더 먹고 성숙해진 이 아침
지난해의 아픔을 훌러 보내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강 건너편 을 바라보니

붉어진 햇 빛이 요동치고

씨늘한 겨울 바람이 지나가도

희망과 삶의 기쁨이

가득한 이 아침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안고

새해의 인사를 나누자

사랑을 품고

아래로 떨어 진

가을의 열매 같이

사랑과 기쁨으로

서로 껴안고

흐느끼는 가슴을

부디 치는 새해

희망의 새해



/ 신년인사 /

각지역 동창회 지역사회 봉사를 활성화 하자

서울대 미주 동창회 (1992년 이후 28년)와 각지역 동창회 (50년 이상)는 이제 사람으로 하면 청년 혹은 중년에 해당할 수 있다.



오인환
(12대 회장)

지역사회의 County Government 혹은 Community Center 인터넷에 들어가면 여러 부서가 나오는데 Volunteer Center 혹은 Volunteer Opportunity를 Search하면 원하는 분야의 지원봉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다. SNUA Group의 이름으로 여럿이 등록하여 자기 시간에 맞게 sign up하여 시작하고 경험담을 회보에 기고하여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 서로 공유하고 배우면서 같이 발전하자. 주류사회에 SNU를 알리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그동안 동창회원들의 진목, 모교발전 지원등 동창회 회칙에 따른 사업을 해 왔는데 이제 부터는 지역사회 (한인사회 및 미주류사회) Community Out Reach (COR) 사업에 범 동창회 차원에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서울대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워싱턴 DC지역 한인사회에서 하는 봉사 가운데 하나는 Potomac Korean Forum이라는 모임이 2017년 2월부터 매월 둘째 목요일 (11시-12시 + 식사) 정기적으로 교양강연회를 하고 있다. 회원은 50명정도로 강연회는 일반에 공개된다.

25개 이상의 지역동창회 가운데는 이미 그런 차원으로 발전한 지역동창회도 있을 것으로 보며 동문들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지역사회 봉사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교양강좌는 경제, 역사, 의학, 미술, 문화, 과학, 공학 등등 다양하다. 강좌 후에는 한인 신문에 게재되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 forum 행사의 하나로 Outstanding Washingtonian 상을 제정하여 추천받아 엄선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다. 워싱턴 동포사회와 언론에서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새해에는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25개 지역동창회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지역사회 봉사사업을 벌였으면 한다. 미주동창회 회보위원회에서 앞으로 2년간 <SNUA Community Out Reach (COR) Program>을 기획기사로 설정하여 미주동창회와 지역동창회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탐방하여 기사로 실어서 동문들에게 알리고 장려하는 Campaign을 벌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다른 지역 동창회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자원봉사사업을 다른 지역 동창회에서 벤치마킹하면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른 지역동창회에서도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하고 비동문을 포함하여 확대해 가면 지역사회의 지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장려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이 Forum의 회장은 이영목 동문(공59), 부회장은 필자가 하고 있다.

/ 신년인사 /

‘진리의 빛’ 발하는 새해 되시길



손재욱
(13대 회장)

새해를 맞이하여 동문님들의 가정에 새해의 소망이 실현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부터 9절에는 “누가 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거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아라.”

필라델피아지부의 송년잔치를 마친 일주일 후 토요일에 회사장립 25주년 기념 송년잔치를 하였습니다. 25년간 회사를 스쳐간 직원 수가 170여 명입니다. 현 50명의 직원들과 삶을 나누면서 배운 점은 경영대학의 지식으로 의미있는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입니다.

직원들에게 직무에 따른 책임을 물으

면서 제 자신의 직무와 책임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 직원들과 8시간 이상의 삶을 나누면서 좀더 의미있는 직장생활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눈코 뜰 사이 없이 변화가서 이제는 제도기 없이 컴퓨터로 디지털 도면을 그려내고 몇 년만에 한번 하던 한국어행이 일년에 서너번씩 하는 이런 그로벌 시대에 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일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동문들과 교제를 하거나 부부사이에서도 우리에게는 항상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잘 살아보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욕망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2020년도에는 이런 꿈을 꾸어 봅시다. 첫째,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모든 이에게 양심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둘째, 눈가림만 하지 말자. 외모를 보는 것은 인간의 성향이지만 결국 영원한 것은 마음입니다. 셋째, 사람을 기쁘게 하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니 그를 믿는 자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살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남을 자기보다 더욱 낮게 여기는 참 겸손을 겸비하게 되어 타인에게 축복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 미주 동문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진리의 빛을 발하는 2020년도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호 1면 정정합니다... "C형 간염치료 제인 「소발디」 개발로 치료약이 없어 고통 받던1억5천만환자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고." 를 "1998년에 주교수와 Atlanta에 있던 교수 몇명이 Pharmasset이라는 제약회사를 설립하였고 Pharmasset에서 C형 간염치료제인 「소발디」개발을 했습니다. 그 회사는 몇년 전에 Gilead 회사에 합병이 되었습니다"로 정정합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ua.org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신년인사 /

꿈이 이루어지는 한해로



노명호 (차기회장)

Y2K 로 떠들썩했던 서기 2000년 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흘러 2020년 쥐띠 새해를 맞이합니다.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미주 동문 모두에게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동문 모두 건강하시고 꿈이 이루어지는 2020년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은 가능하기 어려운 국제 정세 및 한북미 관계 등으로 격동의 한해가 되지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미주동문회에서 다름일은 아니지만 대다수 동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바라기는 2020년은 한국과 미국 모두 선거를 잘치르고 우리후손들에 자랑할 만하고 유익한 정치 유산을 만드는 한해가되었으면 합니다.

또 2020년은 15대 신응남 회장님 Leadership으로 미주동문회가 더욱 활성화 되고 재정이 흑자가 되고 지부 특별히 작은지부들이 더활성화되어 지부소식으로 미주동창회보를 꼭채워주는 2020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2014년과 또 이번 두번째 지

난 10월에 모교 Homecoming Day 에 동문 20여분들과 함께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경치와 운치 끝내주고 현대적인 모교관악 Campus를 방문할때마다 서울대 동문으로 또 마음이 흡족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 이번방문에는 신응남회장님이 모교 재학생들을 위해 기획한 Brain Network Session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마음이 뿌듯했고 관악 Campus정문 조형의 승고한 의미 "Veri Lux Tas Mia, 진리는 나의빛"이라는 모교 Emblem 이 더욱더 자랑스럽게 보였습니다. 2020년에는 더많은 젊은 동문들이 (eg. 75 학년 아래) 참여하는 미주동창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6월 평의원에서 Washington DC 지부 정평희회장님의 성공적인 젊은동문 참여 Program에 대하여 듣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또 이번 12월 회보에 Chicago 지부 "관악클럽" 소식이 또 반가웠습니다.

남가주 지부도 한귀희 회장 Leadership 아래서 80/90 학년 참여 운동이 시작되어 많은 결실을 보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주동창회 및 각지역동창회가 젊은연령대에 맞는 Program들을 더 개발하고 적극 홍보 후원하는 2020년이 되기를 기원 합니다.

미주동문여러분 다시새해 인사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많이 웃으시는 2020년 경자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신년인사 /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길



이성길 (미주 의대 동창회장)

북미주 서울대학교 동창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서울대학교라는 기치아래 미국에 사는 가족입니다. 고생도 같이하고, 눈물도 혼자서 하지 마시고, 같이 흘려야합니다. 자주 만나서 회포를 풀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만나서 할 이야기가 많아요. 한반도 통일은 이루어 진다는 가정하에 미주동문만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북동포들은 가난하고 폐결핵이 많습니다.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가족이고, 도와줘야 세계평화가 이룰수 있습니다. 북한동포도 우리가족입니다. 새해부터 조금씩 조식을 만들고, 만나서, 시작에 들어가야 통일이 될때 효과있게 도울수있습니다. 한국 동문들은 정치에 시달려서 준비가 힘든다고 합니다.

미주 동문가족님들, 이걸 새해목적으로 만들어서 같이하고, 같이걸어가요.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바라며, 역대 1,200명을 대표해서 인사드립니다. 새해에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 한국은 지금 /

Dismantling the US-ROK Alliance?



정계훈 (문리 55)

A countless number of people, often millions, are taking the streets of Seoul, Republic of Korea(ROK) demanding the resignation of President Moon Jae-in. President Moon was elected two years ago with the support of people who were yearning for a peaceful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NK), egalitarian economy, and righteous society. Initially, he won the hearts and minds of the people. But now, his political fortune is waning. His pro-NK policy, socialistic ideology, and "misguided consanguinity reconciliation" are to be blamed. Especially, his pro-NK bias undermines national security by gradually dismantling the US-ROK alliance.

The South Korea's (SK) northern policy is first to engage NK with economic cooperation and gradually move toward a federated or unified Korea. To this end, President Moon is eager to undertake inter-Korean economic projects including the K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Mt. Kumgang Tourism, and the NK's railroad systems. Such economic projects, however, are at odds with US and UN sanctions. If SK pushes ahead with its northern policy, it will certainly weaken the US-ROK alliance.

President Moon also signed the Peace Declaration and the Military Tension Reduction Agreement without the consultation of its defense treaty partner. Moreover, he rejected the US proposal for installing long-term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Missile Defense (MD), and the US-ROK-Japan trilateral alliance in response to the Chinese threat of retaliation. The pro-NK regime is also dismantling the US-SK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air surveillance systems near the demilitarized zone without commensurate measures from NK.

The latest alarming development is the defense agreement between China and Korea signed by their defense ministers, which is an overt challenge to the US-ROK alliance.

The socialistic government is pursuing a "wage-led economic growth policy" by increasing the minimum wage and creating public sector jobs. This socialistic economic policy is blamed for higher labor costs, increased small

Japan. The Moon's national security advisor even suggested that if the US forces leave Korea, China is likely to provide SK with a nuclear umbrella.

To the leftists, the US-ROK alliance is a nuisance that needs to be removed. A formation of a "peace economy" with NK and its continental alliance threatens the US-ROK alliance. The leftists do not publicly denounce the US-ROK alliance, but their actions

systems were peacefully coexisted or unified for long without a struggle. It can happen only when one side surrenders, internally collapses, or loses a bloody war. Since neither SK nor NK wants war and NK is not going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SK seems to cave into the NK stance. Keeping peace under the threat of nuclear bombs is not true peace.

Many Koreans are troubled by the pro-NK bias and socialistic ideology, but their efforts to resist the well-organized leftists had been too fragmented to be consequential. And many others remain silent because they believe peace can be maintained by the pro-NK policy. But, not the Christians who fear the massive persecutions under the socialistic systems. So, they are now galvanizing all the like-minded pro-democratic rightists to take the streets in Seoul demanding a regime change and restoring the US-ROK alliance.

Amid such turmoil, the current US policies toward SK regrettably do not help. The



business failures, and a substantial drop in exports.

When wages increase without improved productivity, it adversely affects economic growth. Korea's GDP growth rate slipped to an under 2% in 2019 down from 3.2% in 2017. The most troubling aspect of the pro-NK policy is the proposed creation of a "peace economy" by forming a federated or unified Korea that will be aligned with China and Russia. This alliance also will be extended to include south-eastern Asian nations that have close ties with NK. This policy reflects the President Moon's preference for the continental alliance over the oceanic alliance including the US and

thus far are pointed to that direction. They see the presence of US forces in Korea as an occupation of imperial power that hurts their national pride. They, thus, sympathize with the NK's self-reliance ideology and are willing to join in the NK's appeal for resolving inter-Korean affairs among consanguineous brethren without foreign influence.

The President's nationalism stems from his belief that peaceful coexistence or unification of two Koreas is possible by means of "consanguinity reconciliation," which is nothing more than a pipe dream. There never been a time when two entities with entirely different ideologies and governance

US is pressuring SK to raise the costs of maintaining the US forces in SK as high as a 400% increase from the current level and the threats of increasing tariffs on Korean-made goods make things worse. These US policies encourage the leftists to move toward the continental alliance.

Vigorous debates are being waged in SK calling for a regime change and restoring the US-ROK alliance. We the Americans not only need to moderate the counter-productive pressure on SK but also provide moral support to the pro-American camp so that they can effectively fight the leftists to preserve the fre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정해민 이사장이 임시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장학금 시상식 수상자들과 임원진.

선후배 200여명 참석... 젊은 에너지·열정 넘쳐 NY 동창회 합창단 공연·임시총회 등 다양한 행사

뉴욕 동창회 송년회

NY 동창회 송년회가 12월 7일 (토)에 Fort Lee, NJ 소재 Double Tree Hotel에서 200여명이나 되는 많은 하객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조상근(법대 69) 회장, 정해민(법대 55) 이사장을 비롯한 회장단에서 새 idea와 열정으로 준비하여 많은 동문, 특히 젊은 동문들이 참여하였다. 특별히 신응남 총동창회 회장 부부께서 참석,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날 행사는 Reception, 총회 및 장학금

수여, 작은 음악회, Dinner 그리고 Entertainment의 순서로 흥겹고, 즐겁게 진행되었는데, 작은 음악회는 이준희(음대 95) 지휘자의 리더십으로 뉴욕에서 음악career를 시작하는 동문 및 공부하고 있는 동문들이 선배를 위해 musicianship과 열정을 더하여 perform해 주었다. 또 새로 발기한 NY 동창회 합창단도 첫 얼굴을 보여 주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뿌듯한 젊은 energy와 performance에 자극을 받았는지 나이드신 선배님들도 젊음을 고리를 풀고 자유분방하게 흥을 발휘해주어 송년 파티 전 행사가 서로 즐거움을 나누는 마당

이 되었다. 금년 송년회에는 광범위한 연령대의 동문들이 참석하였다. 골든클럽으로 대표되는 만년 대뿐만 아니라 90년 이후 입학한 젊은 동문들도 20여 명이 참석했다. 얼른 둘러보니 말형으로 김영덕(공대 53) 박사 그리고 음대14학번의 막내 동문이 보였다. 무려 61년이 대표된 셈이었다. 이번 41대 뉴욕동창회는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업 중 하나인 '젊은 회원 확보' 가 오랜만에 이루어진 셈이다. 이를 계기로 향후 이들을 규합하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줄 안다. <글/사진: 양인화>



역대 최대 동문 참석... 미주동창회 신응남 회장 초청 선후배 110여명 세대 뛰어넘은 '화합의 시간'

조지아 동창회 송년회

조지아 지부 (회장 이 영진·공대 76)는 12월1일 Atlanta 근교, Johns Creek에 위치한 St. Ives Country Club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110명이 넘는 역대 최대의 동문들이 참여하여 회장을 가득채운 성황을 이루었다.

08년 입학한 조영현 동문부터 49년 입학한 선배들까지 60년의 세월을 아우르는 동문들이 모여 선-후배, 친구들과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나누었습니다. 유일하게 40대 학번으로 참석하신 신동헌 선배님 (송대 49)의 격려사가 있었다. 채화진 동문, 조영현 동문(법대 08)의 Piano와 Violin연주는 모임의 격조를 높였고, 배혜영 동문이 지휘한 동문합창단의 합창도 발

군이었다. 서동준 동문(공대 94) 부부의 사회로 이루어진 오락 시간과 김재호 동문부부가 리드한 댄스 program은 오랜만에 즐거움에 빠져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응남 미주 동창회장 부부가 멀리 뉴욕에서 참석, 축사와 함께 자리를 빛내 주었다. 금년 새로 책임을 맡은 김재호 수석 부회장 (공대 80), 배혜영 부회장 (음대 79) 그



신응남(맨 왼쪽) 동창회 회장 부부와 함께 한 이영진 조지아 지부 회장 부부.

리고 최화진 부회장 (음대 85)과 함께 임원들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동문들간의 유대와 결속을 위해 골프대회, 합창단을 포함한 소그룹 활동을 활성화 하고 장학회 활동을 통해 동문들과 지역사회에 좀더 유익하고 보람된 동문회가 될것을 다짐하며 한해 후원해 주신 모든 동문들에게 감사했다. 특별히 물적 심적 도움을 주신 신응남 미주 동창회장 부부, 허지영-주중광 (문리 66 - 약대 60) 전임 회장 부부, 한 해 동안 사랑방 모임을 통해 동문들과 대화를 이어온 김 중규(수의대 73) 부부, 이 행사를 위해 힘쓰 임원들을 포함한 많은 동문 부부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조지아 지부의 한해를 마무리 하였다.

연말총회 160여명 참석... 차차기 회장에 김윤하 선출



시카고 동창회 송년회

12월 맹추위도 발길을 멈추어 선 8일 시카고 근교에 위치한 Drury Lane Theatre & Events에서 시카고 지역 동창회 총회와 송년회가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156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여하여 1부 총회, 2부 관악클럽이 주관한 여흥의 순서로 이어졌다. 총회는 바리톤 김기봉 동문의 제창으로 시작하였고 안타깝게도 금년에 우리 곁을 떠

난 김동수(공대 48), 정지희(문리대 55), 김봉현(법대 51), 송일환(공대 52), 임근식(문리대 57), 권호연(문리대 57), 정시경(약대 58), 지경자(간호대 55) 등 8명 동문을 그리는 묵념이 시간을 가졌다. 김병윤 회장은 "무한 노력하였으나 400여명의 동문 희망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애환, 그러나 동문의 사랑에 힘입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를 감사하며 또한 2020년 각 가정에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윤봉수 부회장이 대독한 미주 총동창

회 신응남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신 회장은 미주 26개 지부 약 2만여명 동문과 소통하며 동창회보를 통해 단합을 담당하는 미주 총 동창회의 소명의식을 언급하며 9월말 회원 1000명 증가 목표 설정, 현재 50% 목표 달성한 성과를 보고하였다. 또 10월 모교에서 행한 브레인 네트워킹, 2020년 제 29차 평의원의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다. 이날 사업보고, 재무보고, 감사보고, 장학금 관리위원회 보고가 있었으며 2019년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에는 수혜자 11명중 7명이 참석하여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령하였고 사정상 미 참석한 4명에게는 직접 메일 하였다. 장학금이 \$2,000로 인상되어 47명의 지원자가 있었고 이를 심사하는 고생한 선발위원회에게도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흥례로 전임 회장에 감사패 증정 및 공로패 전달하였고 또한 장윤일 동문에게도 공로패를 전달했다. 차차기 회장으로 김윤하(공대 66) 동문을



장학금 수여식, 11명에게 2,000달러씩 수여했다.

70여명 참석... 신임회장 임준원 동문 선출

북가주 동창회 송년회

서울대북가주총동창회(회장 박준경 법대 75)는 2019 송년모임 및 정기총회를 12월 7일(토)에 Palo Alto에 위치한 Sheraton Hotel에서 겨울비기 내리는 축성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49학번대선배님(이임성, 한만성)으로부터 젊은 후배학번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세대의 동문 및 가족 7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강정수이사장(문리대 61)의 환영인사에 이어 박찬호총무(자연대 81)의 사회로 2019

년도 동문회 행사와 재무현황 및 후원금 보고에 이어, 지난 2년 임기동안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은 박준경회장부부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차기 동창회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으로 임준원(공대 77), 제2 부회장으로 박찬호(자연대 81) 동문을 선출하였다. 한편, 동문 소개 순서에서는 하춘근선배동문(전자 54)이 UC Berkeley에서 수학하던 윤도영동문(항공 65)을 50년만에 재회하는 시간을 가져, 동문회 모임의 뜻있는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였다.

2부 여흥 시간에는 시니어 동문들이 열심히 준비한 Folk Dance Performance를 시작으로 분위기를 살리면서 그룹별 노래부르기, 쿼츠게임 및 장기자랑과 Line Dance를 함께 하면서 오랜만에 반갑게 만난 동문들이 친목을 돈독히 하고, 상품과 경품을 받아가면서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송년 파티는 이번 12월로 2년 임기를 마치는 박준경 회장님 부부의 헌신적 봉사를 통하여 더욱 성공적으로 또 무사히 끝날 수 있었다. 신년에는 강정수 이사장님을 중심으로한 새 임원진이 미주 동창회와의 지원과 북가주 동창회에서 그동안 구축해온 시스템을 발판으로 한단계 더 발전된 단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선출하였고 차기 회장 장윤일 (공대 60)의 2020년임원진 소개가 있었다. 만찬 시간 중 골든클럽(회장 황치용), 관악클럽(회장 김동업)보고가 있었고 이어서 동아리 모임(음악, 미술, 독서, 미식가, 골프, 댄스)보고를 하였다. 실질적으로 총회를 마감하고 편하게 만찬을 즐기는 와중에 초청 연사인 웃음 전도사의 웃음과 행복에 대한 재미있는 강의를 경청하였으며 식사 후 8시부터 관악클럽이 주관한 즐거운 여흥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정민, 이소정 동문의 피아노 듀엣으로 Chaykovsky의 호두까기 인형중 March와 Russian Dance를 연주하여 Christmas 분위기를 두구었고 이어서 김기봉 동문의 성악술로(한국가곡: 비가, 고향의 노래, 나그네, 한겨레)는 고향의 정취를, 마지막으로 최수완 장학금 수령자의 장구연주는 깊은 감흥을 주었다. 동문의 화합과 혁신을 추구한 김병윤 회장의 바람에 부응하여 형성된 많은 동우회중 하나인 댄스 동우회(A Walk In The Clouds). 12명의 댄스 시연은 2부 순서의 High Light. Waltz와 Swing을 6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2시간 씩 연마한 회원들, 5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되었지만 음악에 맞추어 조화롭게 물 흐르듯이 움직이는 모습은 놀라웠다. 50학번과 80학번의 화합의 장 그 자체였다. 또한 거의 모든 동문이 4시부터 시작하여 끝나는 9시30분까지 참여한 사진촬영도 백미. 사진작가인 김수현(생화학과 98) 동문이 임시 Studio를 설치하여 모든 동문의 개인사진을 촬영하고 즉석에서 인화하여 사진을 선사하는 Big Event을 하였다. 동창회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과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아쉬운 이별의 시간. 초창가수 임광택의 70/80 음악 연주를 뒤로하며 모두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총회와 송년회를 마감하였다.



임기를 마친 박준경 회장부부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강정수이사장.



송년모임의 최연장이신 49년도 공대입학한만선선배님

'겨울음악회'로 연말 분위기 물씬

필라델피아 동창회 송년회

필라델피아 동문회는 송년 모임을 12월 6일 (토) 저녁 5시 30분 갈보리 비전 센터에서 가졌다. 올해도 70여명의 회원들이 동부인하여 참석했다. 지흥민 동문(수의대 61)의 개회선언, 조정현 회장(수의대 58)의 환영사, 이어 새 동문 소개가 있었다. 이흥일 동문으로 상과대학 경영학과 1970년 입학생이다. 서울에서 은퇴

하고 필라의 델라웨어강 건너 Haddonfield로 영구이민을 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한식 뷔페로 식사하며 나누는 동문들의 이야기와 웃음은 그칠줄을 몰랐다. 동문들이 준비한 '겨울 음악회' 막이 올랐다. 역시 서울 음대 졸업생은 달랐다. 비록 10명이 안되는 소수의 인원이었지만, 그들의 완벽한 음악성은 장내 청중들을 황홀의 경지에 몰아 넣기에 충분했다. 마지막 곡은 박해란 동문의 입체 지휘였다. 무대위와 아래 청

중석이 하나가 되어 '오 거룩한 밤'을 합창하며 막을 내렸다. 이어서 래플 순서가 되었다. 당첨번호를 부를 때마다 여기저기서 탄성과 웃음이 터져 나왔다. 김국간 동문(치대 60)은 세 개나 당첨되어 다른 동문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나머지 두 개는 수고한 임원진에게 양도해 또 한 차례 박수를 받았다. 문을 나서는 동문들은 떡과 여행용 보온병을 선물로 받았다.

<사진·기사: 정홍택>



필라델피아상대 송년회

필라델피아에 사는 상대 동문들이 연말에 모여 단합 자축연을 가졌다. 11월 22일 오후 5시 30분 필라 인근 Norristown에 소재한 August Moon 식당에 7명의 동창들이 동부인으로 모여 정담과 근황을 나누었다. 이 모임의 총무를 맡고있는 전방남 동문(무역 73)은 인사말에서, 전에도 연말이 되면 상대 동문끼리 따로 만나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에 더하여 새로운 동문이 이 지역으로 이주 혹은 방문하게 되어 경사로 모이게 되었다고 했다. 기존 동문들은 이 신인 얼굴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맞았다. August Moon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류용진 (경제 59) 동문 부부의 배려로 넉넉한 송구영신 분위기를 조성했다.



동문, 가족 61명 참석 '동문의 정' 나눠

미네소타 동창회 송년회

미네소타 지부 연말총회 및 송년파티가 지난 12월 13일 (금) 오후 5시에 미네소타대학 Coffman Union President Room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미네소타의 추위와 눈이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문과 가족 모두 61명이 참가하여 훈훈한 분위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송년 모임에서 동문가족들의 정성이 깃든 푸짐한 저녁식사를 하였다. 장윤정 (식품영양 10) 한규직 (체육교육 11) 차재호 (농공 84)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연말총회는 송세진 (치대 78) 회장의 개회선언과 교가제창으로 시작 되었다. 동문들 간의 자기 소개 시간을 통해 미네소타에 새로 온 동문들과 그동안 바쁜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웠던 동문들을 많이 만나 볼 수 있었다. 2019년 사업 보고 및 동문들의 동정 중에,

특히 2019년에는 서울대 학생들이 미네소타 대학에 2주간 계절 수업을 받으러 와서 서울대와 미네소타 대학간의 특별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는 한해가 되었고, 언론 매체에 보도된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네소타에 거주하시는 동문들이 서울대 학생들과 지도 교수 및 조교들을 위해 만찬과 합창 기회, 그리고 3M 방문 등을 주선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성욱진 (치대 87) 재무간사의 2019년 회계보

고를 통해 회비 사용 내역이 모두에게 공지되었으며, 이어 선정된 학생들에게 (장윤정 10, 한규직 11) 장학금이 수여 되었다. 총회를 마친 후 김권식 (공대 61) 동문의 "5가지 우리 생활을 바꿀 새로운 기술"의 특별 강연을 통해 DNA Sequencing, Robotics, Energy Storage, Blockchain Technology 및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들을 경청할 수 있었으며, 김권식 동문의 해박하신 지식과 재치있는 강연으로 모든 동문들의 열기를 한 곳에 모을 수 있었다.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송년파티는 송세진 (치대 78) 회장의 동문들과 임원진에 대한 감사와 새해 인사로 끝을 맺었다. <기사: 차재호 (농공 84)>



미네소타 지부 송세진 회장이 김권식 동문에게 감사의 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보내주시시오.

종신이사 추대



정동구 (공대 57)

정동구 종신이사는 1961년 공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공군 각종장교로 입대하여 공군사관학교에서 4년간 교육 장교로 근무 하였다. 제대후 대한 Plastic 부강공장에 입사하여 한국 초유의 PVC 생산 공장의 설립 및 설계 부분에서 3년 반 동안 일했다. 1968년 도미 후 Carrier Cop. 에서 일한뒤 UCLA 공대에 입학하여 Heat and Mass Transfer 부분에서 1974년에 PhD 학위를 취득했다. Atomic International사에서 Breeder원자로 개발 및 energy conversion 연구분야에서 7년 간 일한뒤 Boeing사의 Rocketdyne Canoga Park branch 에서 Rocket Engine 개발, 고성능 항공기 개발, Space Station Power Generation project 등에서 20년 간 Engineer로 근무 현재는 은퇴후의 여유를 만끽 중이다.



강연 · 싱어롱 · 불우이웃 돕기 모금 등 다양한 행사

뉴잉글랜드 동창회 송년회

뉴잉글랜드 동창회 (회장 이강원, 공대66)는 지난 12월 14일(토) 연말 모임을 데드햄 (Dedham) 소재 힐튼호텔 연회장에서 가졌다. 60여명의 동문이 참여한 자리에서 이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뉴잉글랜드의 역사에 비취진 동창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새 역사 창조를 강조했다. 특별히 모임 참석을 위해 부부 동반으로 뉴욕에서 올라온 신응남 미주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원 1,000명 늘리기, 젊은 동문들을 더 많이 영입, 활기있는 동창회로 만들 목표를 밝히고, 같은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보스턴 지부의 활동을 지휘하였다. 이어서 워싱턴에서 초청강사로 온 곽노은 작가, 광복실 아나운서 부부의 "문화와 자연의 보고, 유럽"이라는 제목의 특별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안전한 유럽 자유여행의 비결,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주제를 따라가는 저렴하고 가치있는 여행계획과 방법 등으로 참석자들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건배사로 최연장이신 이재신(공대57), 최찬혁(의대57) 이사의 덕담이 있었고, 식사후에는 양나라 (음대08), 최예슬(음대08, 뉴욕) 동문이 주옥과 같은 목소리로 거룩한 밤과 오페라 아리아 등의 곡을 불러주었으며 고향의 봄과 성탄곡으로 즐거운 Sing-along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래플 fundraising시간에는 최홍균 동문(공대69)이 기증한 55 인치 TV, 이재봉 동문(공대72)이 기증한 iPad 7th Gen 등 푸짐한

경품을 가지고 \$1,000 목표의 이웃돕기 기금 모금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는 Stanford 대학에서 2000년에 시작, 현재 미국 42개주에 걸쳐 116 지부가 활동하고 있는 캠프 케셈 (Camp Kesem)을 돕기로 하였다. 이 기관은 부모가 암치료를 받는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어린 이들에게 무료 여름캠프를 제공해주는 기관이다. 많은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마지막 모자란 부분은 윤상래 이사직전 미주동창회 회장, 수의 62)가 쾌적, 목표액 \$1,000이 달성되어, 수익금의 절반은 하버드대학을 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캠프 케셈에 보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모임은 젊은 세대 동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위해, Child-Care Service도 제공되었고 김경일 이사(공대 58)가 35세 이하의 학생동문과 그 가족의 참가비를 지원, 앞으로도 계속 젊은 동문들의 적극 참여를 권하였다. 올해도 이재신

(공대57), 박영철(농대 64), 정선주(간호 68), 김용구(공대 66) 이사가 장학금과 기부금을 전해주었고, 이강원 회장(공대 66)도 장학금을 쾌척하였다. 동문뿐 아니라 지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본 동창회의 2020년 장학금 신청안내는 이미 동창회 웹사이트에 자세히 올라와있으며 일찍 접수한 지원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0 장학금기금을 기부할 동문은 이회장에게 (401-369-1565) 연락하면 된다. 파티가 끝난 후에도 아쉬움 속에서 동문들은 연말연시의 인사를 나누고, 새해에도 더 좋은 일들이 가내와 동창회에 있을 것을 서로 기원하면서 이번 토요일(12월21일)에 있을 월든 폰드(Walden Pond) 문학산책과 1월1일 새해맞이 블루힐(Blue Hills) 가버넌 등산모임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한 데케이드(decade)를 보내는 풍성하고 즐거운 행사를 끝맺었다.



신응남 동창회 회장 부부(가운데)와 함께 한 이강원 NE지부 회장 부부.

에드워드 & 인애 강자선재단 2020년도 장학생 모집

에드워드 강 (사대 60) 동문이 부인과 설립한 에드워드 & 인애 강 자선재단에서 2020년도 장학생을 모집한다. 2017년도부터 해마다 수여하는 이 장학금은 금년이 4번째로 해마다 10명 이상의 4년제 대학 혹은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1인당 \$5,000, 총 \$50,000 이상이 지급된다. 신청 자격이나 제출 서류등 자세한 내용은 www.edwardkangfoundation.org를 참조하면 된다. Application 마감일은 2020년 2월 15일이고 합격자는 2020년 5월 31일에 발표한다.

그동안 30명의 학생들에게 \$5,000씩, 7명의 학생들에게 \$2,500씩, 총 37명에게 \$167,000을 수여 했다. 이외에도 에드워드 & 인애 강 자선재단은 병원과 학교, 그리고 Korean-American Community 비영리단체와 어려운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과거 수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거나 특별 분야에 활동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 강동문 부부의 소망이다. 에드워드& 인애 강 자선 재단은 IRS로부터 IRC Section 501 (c) (3) 비영리 단체로 인

결혼을 축하합니다

서울대동창회 재무국장, 바리톤 한경진 동문이 지난 10월30일 결혼식을 올렸다. 신부는 현재 맨하탄에서 Sebitt 회계법인에서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재민이다. 두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를 받았으며, 재단의 모든 비용은 외부의 협조없이 일체 동문 부부가 부담하고 있다. 에드워드 강 동문은 과거 서울대학교 뉴욕 지역 동창회장을 역임한 바있다.



자선음악회 수익금을 버지니아 장애인협회에 전달하고 있다.

자선음악회·평의원 인준·장학금 수여 등 성료

워싱턴 DC 동창회 송년회

지난 12월 15일 (일) 저녁 버지니아 Falls Church에 위치한 웨스틴 타이슨스 코너 호텔에서 동문과 가족들을 포함하여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연말 잔치를 가졌다. 1부 총회는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교가 제창과 간단한 회계보고에 이어, 지난 1년 동안의 여러 활동이 담긴 동영상 상을 시청했다. 동문 전체 행사 (설날 잔치, 룽우드 가든 관광, 가을 가족 피크닉, 가을 자선 음악회, 연말 파티)와 다양한 동호회 활동 (SNU 하이킹, 볼링, 골프 등) 뿐 아니라 새로이 탄생한 마로니에 (74학년 이전), 아크로폴리스 (75-99학년) 사로스 (2000 학년 이상)의 활발한 그룹 행사들 (영화/Wolf Trap 공연 관람, 볼링 대회, 게 잡기, winery & brewery 방문, 번개 산행 등)가 짧은 동영상 안에 촘촘히 담겨져 있었다.

2011년 이후 2년에 한번씩 가져온 다섯 번째 자선 음악회의 감동 어린 동영상 상을 시청한 후에 행사를 통해 모인 후원금 (\$10,000)을 버지니아 한미 장애인 협회 (VA KADPA)에 전달하였다. 이어서 내년 6월에 있을 총동창회 평의원의회의에 참석할 워싱턴 지역의 8명의 평의원 (회장/부회장-당연직, 이주희, 류영준, 정원자, 박평일, 박문수, 1명 미정) 인준이 있었다. 곧 이어 함은선 (음 77) 장학위원장이 역대 가장 많은 11명의 장학금 수혜자에게 총 \$11,000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특별히 올해는 장학금 수혜 학생들이 기부한 선배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동창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함께 전달하여 선배의 따뜻한 마음이 나눠졌다. 올해 기부자로는 나영은 (가정 86), 남옥현 (경영 84), 박용길 (약 56), 백순 (법 58), 안선미 (농 65), 이주희 (음대 89), 정원자(농 62) 한의생 (수의 60) 그리고 함은선 (음대 77) 동문이고, 워싱턴 지부 동창회에서 \$2,000을 기부하였다. 내년 1월 25일

12시 우레옥에서 열리는 설날 잔치와 4월 중에 있을 Williamsburg 관광을 미리 광고하며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총회가 끝나고 바로 단체사진 촬영 후,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동기들과 선배들의 즐거운 담소만 만찬 중에 계속 되었다. 식사 후에 동문과 배우자로 구성된 고전무용 공연이 있었다. 한복을 곱게 입은 김찬 (공67) 동문과 그의 아내(정귀희)가 판소리 춘향가의 '사랑가'에 맞춰 몽룡과 춘향의 아름다운 사랑을 멋진 춤사위를 통해 보여주었다. 이어서 6년 동안 시니어센터에서 함께 고전무용을 배워온 5명의 동문과 배우자들- 조숙희 (간호 70), 조향옥 (간호 68), 정귀희 (Mrs. 김찬), 이순은 (Mrs. 남춘일 사68), 한영희 (Mrs. 김내도 공대 62)가 화려한 부채춤 공연을 펼쳐서 참석자 모두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2부 순서는 방송인이며 개그우먼인 송은경씨에게 사회를 맡겨 게임 및 그룹 댄스를 진행하였다.이번 파티에는 역대 가장 많



동문과 동문 배우자로 구성된 부채춤 공연

선배 함께 새해 희망·다짐 나눠

하트랜드 동창회 송년회

12월7일 토요일 heartland 선배님 13분 모시고 망년회를 가졌다. 오명순 전회장님께서 새로 이사하신 잘 꾸며진 새 저택을 제공 해주셨다.

풍성한 저녁을 나눈 뒤 지난 한해를 회고하고 새해를 맞은 다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이주현 총무님 사회로 즐거운 오락 시간을 가졌다. 2020년 새해의 희망과 모든 회원들의 강건함을 기원하며 2019년 하트랜드 동창회 모임을 아쉬움 속에 마무리 했다.



/ 부음 /

세계적 분석철학자 김재권 동문

미국에서 활동한 세계적 분석철학자 김재권 동문이 11월 27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철학 관련 뉴스를 전하는 매체 '데일리뉴스'(Daily Nows) 등은 지난달 29일 한국계 미국인 철학자 김재권 브라운대 명예교수가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1934년 대구에서 출생한 고인은 서울대 불어불문학과에 재학 중이던 1955년 미국 국무성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다트머스대에서 철학과 수학 등을 공부했다. 최우등생으로 대학을 졸업해 졸업식 대표 연설자로



로 미국 철학학회 중부지구 회장을 지냈다고 알려졌다.

선발되기도 했다. 프린스턴대에서 과학철학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은 뒤 코넬대, 존스홉킨스대, 미시간대를 거쳐 1987년부터 브라운대에서 학생을 가르쳤다. 동양인 최초로

물리학 박사 임원규 동문

물리학 박사 임원규 동문이 11월 23일 별세했다. 임 동문은 1957년 서울대 물리학과 입학, 서울대 대학원, 1963년 University of North Carolina를 졸업했다. 임 박사는 학위취득 후인 1971년 나사 제트 추진연구소(NASA JPL)에 입사하면서 2남2녀와 함께 LA로 이주했다. 이후 30년간 JPL 연구원으로 근무, 2000년 은퇴한 뒤 10년간은 캘텍에서 연구교수로 대학원생들을 지도했다. 미세중력장(micro-gravity) 내에 나타나는



자 김해태 교수의 영향을 받아 종교의 심층적 면모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

물질의 구조와 성격을 연구했으며 지구 중력의 영향이 극도로 약해지는 외계의 로켓 속이나 성간 물질들의 성격을 연구했다. 대학에서 정식으로 퇴임한 후에는 신학적으로

/ 신년시 /

2020년 첫날에 부치는 시



박평일 (송대 69)

또,
미 대륙에, 오대양육대주에,
내 가슴 속에, 셋빨간
새 태양이 떠오르네

내가 살아가야할 새로운
한해가.

심장이 뛰네, 가슴이 뛰네
처음이자 마지막
첫 사랑처럼

누가 감히 일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가!

일년은 365일,
지구가 태양의 궤도를
한바퀴 공전하는 저,
신비한 우주의 시간을 두고

인생은 짧고
살아갈 날은 긴 것

산다는 것이 뭐 별건가?
아웅다웅, 지지고 볶으며
울고 웃으며
서로 사랑하는 거지.

새해에는
더 자주 전화를 하고
더 자주 편지를 쓰며

더 자주 만나서
더 자주 악수를 하고
더 자주 안아주며
더 자주 안부를 전하며 살세나.

일년은 365일,
서로 사랑하며 살기엔 아주
충분한 시간이어.

새로운 태양은
바로, 너와 나를 위해서
셋빨강게, 지금
떠오르고 있다네

김경애·주선희 등 동문 등 4명 LA 중진작가 22인전 참여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PARKVIEW Gallery(관장:김병연, 공대68)에서 LA 중진작가 22인전이 열렸다. "INNER SPACE"(내면의 공간)를 주제로 열린 이 전시회는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기법으로 제작한 회화와 사진들 54점이 전시되었다. 이 전시회는 강창환(법대 68), 김경애(미대83), 주선희(문리대66), 홍선례(음대70) 등의 동문이 참여했다. 11월 2일 오프닝 리셉션에는 150여명의 작가와 친지, 미술애호가들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참여한 동문들은, 전 총동창회장인 서지원(공대69), 박상길(송대58) 상임이사들과 민일기(차기 총동창회장, 약대69), 한효동(공대 58), 최진석(법대회장, 64), 현혜명(미대 61), 김구자(미대 61), 김영태(미대 73) 등의 동문 30여명이 참석하였다. 강창환 동문의 작품 "From"은 세상과 자연의 탄생을 시원적으로 그려 본 것이고, 그 원천은 자연의 어떤 시원적인 처음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서울대 법과대학 (68 학년)에서 법학, 서울대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공법을 전공했다. LA 라디오코리아에서 뉴스 앵커로 활약했고 New Jersey와 LA 등에서 몇 차례 개인전을 가졌고, 2014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유화로 서양화 부문 입선, 서울시립 경희공미술관 전시회에 참가한 바 있다.

김경애 동문의 "Nature is inside me 1019"는, 한지캔버스 위에 Oil, Acrylic 등을 이용해 동서양의 만남을 추구한 작품으로, 자연이 내 안에 내가 자연 안에 합일되는 정점, 즉 '물아일체'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과 중앙미술대전 특선,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여했다. 또한 경희대, 상명대, 안동대 강사를 역임한 바 있다. 주선희 동문의 "닭을 안고 있는 소녀(Girl with a Chicken)"는 시골 소녀가 닭을 안고 있는 것을 그린 것으로 주제는 사랑, 동물에 대한 사랑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포토샵 디지털 아트를 중이에 프린트한 것이다. 서울대 문리대 물리학과와 UCLA 미술대학원을 졸업하고, LA, 뉴욕, 서울 등지에서 개인전 및 그룹전에 참여했다. 홍선례 필자는 달, 해, 문, 창, 산 등을 직선과 곡선, 원 등을 이용해 내면의 감정과 사고를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컴퓨터 그래픽, 제목은 "무제"이며 이 번으로 세번째 참여한 그룹전이다. 서울음대 작곡과 및 음악대학원 국악과를 졸업하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예술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효성여대, 중앙대, 청주대 등에서 강사를 역임했다. 또한 Otis College of art and Design과 Alaska 주립대 미대를 수료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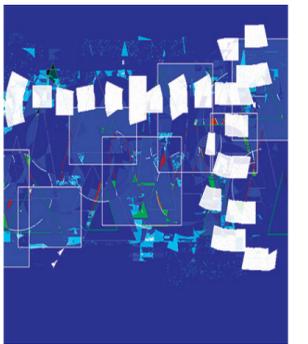
강창환 (법대 68) 작품



김경애 (미대 83) 작품



주선희 (문리대 66) 작품



홍선례 (음대 70) 작품

며, 현재 PARKVIEW Gallery에서 Curator로 일하고 있다. 2020년 봄에 있을 초대전 준비로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앞으로 1년에 두 번 있을 이 전시회에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태영(문리 71)

/ 삶과 생각 / 공처가

<전국 공처가 협회 표어 당선작>

1. 장려상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아내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2. 동 상

아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 인가를 생각하라.

3. 은 상

나는 아내를 존경한다. 그로 존재한다.

4. 금 상

나는 아내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5. 특별상

니들이 아내를 알아?

6. 대 상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밥짓고, 설거지, 청소, 빨래를 하겠다."

들에게 밥 먹으라고 부르고 딸들은 아버지가 차려준 음식을 재잘대며 맛있게 먹는 것을 본적이 없다. 매일 그랬다. 아버지는 싫은 표정도 없이 당연하듯이 부엌일을 했고 딸들도 당연한 일상적인 일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이었다. 그것이 인상적이었는데 왜 그런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중국과 수교가 이루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 중국에 간적이 있었다. 그 때 우리 일행의 현지 가이드로 중국 조선족이 우리를 안내한 적이 있었다. 그는 내내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는 푸념을 농반 진담 반 자주 하였다. 자기는 이곳에서 같은 조선족 여자와 결혼하였는데 "낮에는 밖에서 죽어라고 일하고, 집에 가서는 밥 짓고 빨래하고, 아기 기저귀 갈아주고, 똥 걸레 빨고 하느라 죽을 지경"이라

대의 공처가는 당(唐)나라 시대 고종 이치(李治)였다고 한다. 그는 공처가 정도를 넘어서 아예 국사를 그의 처인 측천무후(則天武后)에 넘겼다고 한다. 중국 역사 최초이자 마지막 여자황제인 측천무후는 많은 드라마에서 그의 성격이 표독한 것으로 잘 그려져 있다. 그정도의 표독성이니 고종이 국사까지 넘겨줄 정도로 무서워했을 법하다. 그러나 이치는 고대 한국 조상에게는 무서운 존재였다. 신라와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장본인이다. 공처가라고 알볼 일이 아니다.

중국에서 공처가가 많은 연유는 중국의 도교 전통에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문화 정치 역사의 커다란 밑 배경을 유교라고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유교는 겉으로만 그렇고 사람들의 일상에는

로 해석될 하고 있다.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장기근 교수의 번역서에는 "골짜기 여신은 영원히 죽지않고 만물을 창조해 낸다. 이를 현빈이라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해설을 달아 현빈을 '신비로운 생식력을 지닌 여성'으로 풀이하고 있다.

다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경교도 한다. 골짜기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낮다고 경망스럽게 함부로 무시할 수 있으나, 기실은 조심스럽고한다. 모든 것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모이기 때문에 결코 마르는 법이 없고. 그만큼 생명력도 크고 끊임이 없이 면면히 이어진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또 모든 것이 모아지기 때문에 천지만물의 중심이자 핵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6장은 노자가 주장하는 만물의 근원은 계곡이라는 뜻이다. 그 근원, 즉 우주만물의 생성원리는 바로 노자가 구구절절 설명하는 '도(道)'인데, 그 道가 계곡이고, 계곡이 여성이어서, 여성이 바로 道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도교는 여성 숭배 사상을 갖고 있고, 중국인들의 심리적 근저에 그런 사상이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왕 나온 김에 제 6장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谷神不死 是謂玄牝. 玄牝之門 是謂天地根. 綿綿若存 用之不動." 후반부 두 구절을 장기근 교수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 유현하고 신비스러운 여신의 문이 바로 천지 만물의 근원이다. 곡신은 보이지 않고 없는 듯하면서 있고, 그 작용은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해설을 달아 '곡신은 여성의 생식작용의 신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수도 있다' 라고 적고 있다.

따라서 미술가를 길러내는 미술가의 훈련은 자연을 모방하는 사실주의 훈련에서 시작한다. 자연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서를, 동양에서는 산천 초목에서보았고, 서양에서는 인체에서 보았다. 따라서 동양화가의 훈련은 사군자,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의 생동하는 선을 모방하는 훈련과 산의 준법을 익히는 훈련에서 시작하고 서양화가의 훈련은 인체의 아름다운비례, 인체가 가지고 있는 오묘한 색채를 모방하는 훈련에서 시작된다. 서양화가들에게는 인체의 비례, 인체가 만들어내는 운동감을 표현하는 기술과 색 채를 우려내어, 인체가 갖는 오묘한 색채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인체는 미술가들이 공부해야하는 중요한 교재이다. 미술대학, 미술학교 수업에는 항상 nude model이 동반한다. 인체가 갖는 비례, 운동감, 인체가 갖는 오묘한 색채를 만들어 낼 줄 모르는 화가는 자격이 결여되는 돌팔이 화가이다.

인간은 문화보다 본능이 우선이라 중국인의 뼈 속에는 유교적 요소보다 도교적 요소가 훨씬 더 많이 스며들었다고 하니 이런 맥락에서 분석해 보면 중국인에 공처가가 많은 이유가 이해된다.

미래 시대는 공처가가 아니라 대등가로 가는 것 같다. 남녀 같다는 의미다. 과거처럼 힘으로 이기는 일이 없어지고 머리로 이기는 시대이니 연약한 신체를 지녔다해도 머리면 좋으면 승자가 되는 시대이니 말이다.

나는 남여 평등주의자이지만 때로는 "넓은 안방에 가부부 틀고 앉아 상다리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어엿한 아침상이나 저녁상을 따박따박 받아 먹으며 짐짓 위엄부리고 여유있는체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본다.



박재은 (미대 63)

/ 미술 이야기 /

미술 산책 (I)

반짝이는 햇살이래 만물은 피고진다. 아름다운 색채의 노을과 함께 아침이 오고, 한낮이 지나 찬란하게 떨어지는 저녁 노을 속에 하루는 사라진다. 계절의 순환, 봄날, 화사하게 만발한 온갖 화려한 봄꽃들, 여름날, 질푸른, 무성한 수목 사이에 무리지어 피어 오르는 온갖 여름 풀꽃들. 가을의 장려하고 화려한 단풍, 자연은 시시각각 지고지순한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내며 질서정연한 운행을 하고있다.

과학, 종교, 학 문, 예술,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은 진, 선, 미의 실체인 우주자연에 대한 인간의 경이로움과 호기심(wonder)에서 시작된다. 하늘에 반짝이고 있는 별을 보고 경이로움과 호기심에서 천문학이 시작 되었듯, 인간의 지적 발전사는 인간이 우주 자연을 어떻게보고,이해하며 그 신비한 힘을 사용하느냐는 역사이다. 미술사는 아름다운것을 보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충동인, 모방충동 즉, 심미적 대상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방하고자 하는 충동에서 시작되다 (Aristotle's).

따라서 미술가를 길러내는 미술가의 훈련은 자연을 모방하는 사실주의의 훈련에서 시작한다. 자연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서를, 동양에서는 산천 초목에서보았고, 서양에서는 인체에서 보았다. 따라서 동양화가의 훈련은 사군자,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의 생동하는 선을 모방하는 훈련과 산의 준법을 익히는 훈련에서 시작하고 서양화가의 훈련은 인체의 아름다운비례, 인체가 가지고 있는 오묘한 색채를 모방하는 훈련에서 시작된다. 서양화가들에게는 인체의 비례, 인체가 만들어내는 운동감을 표현하는 기술과 색 채를 우려내어, 인체가 갖는 오묘한 색채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인체는 미술가들이 공부해야하는 중요한 교재이다. 미술대학, 미술학교 수업에는 항상 nude model이 동반한다. 인체가 갖는 비례, 운동감, 인체가 갖는 오묘한 색채를 만들어 낼 줄 모르는 화가는 자격이 결여되는 돌팔이 화가이다.

Rembrandt의 인체해석, Cezanne등 인상파들의 인체해석, Picasso의 인체해석 등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지능으로 우

주 자연인 인체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며 표현 하는가의 다름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연을 공부 해야 한다.

1950년대 서양미술은 서양미술의 발전사 인, 인상파를 거쳐 입체파, 1,2차 대전 중 탄생한 표현파의 기법에 동양의 서예 정신인 기운생동의 정신적 표현을 종합해 이곳 NewYork에서 School of New York에 의해 그야말로 미술의 형식과 내용을 종합 완성한 Abstract Expressionism을 탄생시켜 미술사의 정점에 이르렀는데, 그당시 Pollock, DeKooning등 역사를 만들었던 많은 훌륭한 화가를 만들



어년 Hans Hoffman 등 훌륭한 선생님들은 그 제자들에게 자연을 공부할 것을 당부했다. (nothing is greater than nature) 1970년대 까지만 해도 화가들은 미술사의 모든 발전단계인 , 사실주의, 인상파, 입체파의 기초를 탄탄히 공부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창작적인 추상작품을 만들었다. 입체파의 발명으로 공간만 가지 않고 쉽게 그림을 만들수 있는 시대를 살고있는 현대 젊은이들은 자연을 착상하게 공부를 하여 착실한 기초를 닦는데 시간을 투자 하지 않고, 아무 기초없이 우선 충동적이고 선정적인 작품을 해서 유명세를 탈려는 허황하고 부질없는 짓을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다.

과학 학문의 발전상에서 보듯 인간의 지적 발달의 역사는 인간이 어떻게 우주자연을 보고 이해하느냐의 역사였듯, 미술사의 역사는 인간이 어떻게 우주자연의 화가마다, 인체를 해석하는 기법이 다르다. Rembrandt의 인체해석, Cezanne등 인상파들의 인체해석, Picasso의 인체해석 등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지능으로 우

행 한다. 서양의 고딕시대,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 인물화에는 자연스런 표현이 안되어 있고 camera가 찍어내는 듯한 그럴듯한 사실 적인 표현이 가능 하게 된때는 18 세기 께에 와서야 가능 했다. 하나 신비로운 사실은 동과 서의 교류가 비교적 없었던 시대에도 그 발전의 속도가 같다는 것이다.

서양 Rembrandt와 김홍도는 거의 엇비슷한 시대에 살고 간 사람이다. 인간 사유의 능력의 발달도 이와 같이 동과 서의 교류가 비교적 없었 지만 그 발전의 속도가 병행하드느것을 어느 철학자의 강

이 짝이 초록색 나무를 표현하는 점묘파 (pointilism)의 그림을 그렸다. 자연에 있는 색채를 spectrum으로 비추 보라는 인상파 이후 부터 색채는 중요한 회화 언어가 되었다. 따라서, 현대 미술가들에게서는 시인들이 추구하는 언어를 다듬고 다루는 언어 구사술처럼 차고 따듯한 색을 조화롭게 구사해서 우려내어 오묘한 색채를 내는 색채 구사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Van Goch의 그림에서 보는 작은 붓 터치들로 이뤄 진 색채의 symphony, Bonnard 그림에서 보는 차고 따듯한 색의 하모니로 이루어진 주옥같은 색채 조각들 , 그 이후 Klimt등 그림을 보노라면 마치 색채의 구도자가, 구도 행각에서 얻은 주옥 같은 색채의 하모니를 본다.

1980년대, 나는 세계각처에서 몰려드는 tourist들이 북적대는 이곳 Soho Greenwich Village 에서, 초상화를 그리며 생계를 유지하는 거리의 화가들과 어울려 초상화를 그리며 생활 했는데 우연히 길바닥에 헌책을 놓고 팔고 있는 상인에게서 Garbor Peredi의 화집을 샀다. Hungary인 어머니 아버지가 시인인 그는 시적 감수성이

로, 강변, 해변 등 늪 지역에 무성한, 잘 익은 색조의 가을 풀들을 그린 그토록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렸다.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이지만 그의 작품들은 Whitney Museum 등에 소장 되어 있다. 찬 색과 따듯한 색을 조화롭게 구사한 고도의 색채 구사술을 나는 지금도 가끔 그의 그림을 교과서 처럼 참고하며 공부하며 나의 그림에 보탬을 한다.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선, 색채, 형태 등 여러가지 요소를 보는데, 그 중 색채는 가장 먼저 눈에 뜨인 요소이고, 가장 강한 요소이다. 자연은 온갖 색채로써 존재하고 있다. 연초록 어린잎이 장년의 짙은 초록 색 잎이되고 때가 되면 붉고노랗게 물들이 떨어지고, 온갖 빛깔의 열매와 뿌리들, 곤충과 동물들의 온갖 불빛까지 털 빛깔, 조개껍질 속의 아련한 무지개 빛 등 자연의 조화는 무궁하다.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민기치않은 기적같은 적나라한 실체이듯 우리들은 자연에서 바로앞 곳곳에 시시각각 전개되는 민기치 않은 기적, 우주 자연의 신비, 아름다운 시를 본다.



시카고 동창회장
장운일(공대 60)

2020년을 맞이하여 미주에 계신 모든 동문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Times! 라는 말이 미국생활에서 특히 절실하게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창회를 통하여 후학들을 위한 장학사업, 다양한 동아리 모임, Golden Club, 관악 클럽등 날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카고 동창회의 활동들을 보면서 모교의 긍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힘찬 새해를 맞이하시고 모든 동문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네소타 동창회장
송세진(차대 78)

미국 Midwest를 뒀친 polar vortex 한파로 미네소타 지부는 지난해를 극도로 춥게 시작하였지만 차재호 총무이사(농공학 84)를 포함한 여러 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동문회의 한해를 따스하게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동문회는 윤상래 직전 미주동창회장님이 강조하였듯이 선의(goodwill)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Goodwill은 cheerful consent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동문회 임원을 맡거나 각종 행사에 참여할 때 자발적이고 흔쾌하게 동의 하는 여러분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 내내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길 기원합니다.



남가주 동창회장
한귀희(미대 68)

존경하는 미주동창회 동문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남가주 총동창회는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월 이사회와 2월 민일기 차기회장님의 취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임원들의 활동으로 80, 90년 입학 동문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며 40년 차이를 넘어선 선후배의 화합을 보여준 한해를 지나면서 2020년은 더욱 건강하고 젊은 동창회를 꾸꾸게 된 계기가 된 한해였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동문들의 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뉴욕 동창회장
조상근(법대 69)

2019년은 한국이 이제까지 겪어 보지 못한 혼돈의 한 해를 넘겼다면 멀리 떨어져서 미국에서 살아 온 우리들은 고국의 소식들에 한 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얀 쥐의 해를 맞아 내 나라도 더 이상 체제논쟁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일꾼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좋은 모습만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서울대출신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지나간 역사에서 배운 산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앞장 섰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 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뉴잉글랜드 동창회장
이광원(공대 66)

2020년은 작게는 지난 1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10년에 진입하는 해입니다. 100세 시대에 10년은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1만 시간의 법칙(10년동안 하루 3시간씩 노력하면 그 분야의 천재가 된다)"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새로운 10년(a decade)을 시작하는 새해 아침에, 새로운 출발점에 선 우리를 조망하면서, 우리 동창회나 동문들의 눈부신 발전과 달성을 기원하는 마음이 제 가슴에 가득합니다. 동문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동행하여 아름다운 추억을 지속하여 만들어 나가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필라델피아 동창회장
조정현(수의대 58)

황금 돼지해의 기해년이 지나가고 경자년 쥐띠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황혼기를 맞았으니 언제 그렇게 세월이 그리 빨리 갔나 싶습니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미국 도처에서 눈부신 발전을 누리고 있을때 우리가 모교에대한 애교심을 잠깐씩 잊고 있는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우리가 서울대 동아리안에 늘 함께하며 발전하며 자녀들도 키우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건설한 일꾼으로 길러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디 다가오는 새해에는 동문들과 가족들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조지아 동창회장
이영진(공대 76)

2020년 밝아오는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조지아지부 동문들의 마음을 모아 인사드립니다.

조지아 지부는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성장하여 왔고 250분이 넘는 동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번 송년회에도 110명이 넘는 동문들께서 참석 하시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새해에도 늘어나는 동문들간의 교제가 활발해 질 수 있도록 SNS를 이용한 동문 정보의 수집과 배분을 강화하고, 소그룹 활동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려 합니다. 무엇보다 바쁘고 외로운 이민 생활속에서 동문회를 통하여 즐거움을 나누며 위안을 얻는 구심점이 되는 조지아 지부가 되도록 임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

동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서울대 미주동창회 신용남 회장/임원 일동



하와이 동창회장
성낙길(문리 77)

동문여러분 2019년 한 해가 어김없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고, 새해에는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평화가 한 걸음 다가가는 결실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워싱턴 D.C. 동창회장
정평희(공대 71)

새해가 또 시작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는 저희 워싱턴 디씨 지부는 많은 행사를 하여서 동문간의 유대를 더 긴밀하게 하려고 노력 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동문회를 나이별로 나누어 각 그룹의 리더를 정하여 그룹 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였고 전체 행사도 더불어 같이 진행 하여 서울대 동문회가 살아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모두가 인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점점 늘어 나서 샬로수 (2000 이후 학번 모임) 숫자가 50명이나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동창회는 여러 행사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동문으로서의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을 미주 사회와 모교에 돌려 주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플로리다 전 동창회장
정치영(법대 76)

동문님들에게 희망이 충만하며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지난 2019년의 한국을 돌이켜 볼 때 저는 참으로 불안한 한 해였다 생각이 듭니다. 새해에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모든 일들이 풀려 마음이 편안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새해에는 자신에게도 엄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바탕위에서 주위에게도 주저 없이 고언과 부조리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지성인다운 자세를 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서울대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본인을 지성인으로 본다는 것이겠지요. 끝으로 새 해가 많은 분들께 새로운 만남을 가져오게 되기를 기원하며 Happy New Year 입니다.



커네티컷 동창회장
유시영(문리 68)

올해에 작정한 많은 일들을 다 이루지 못했을 지라도 동넵에 해는 여전히 솟아오르고 온우리를 촉촉히 적시는 이슬은 계속 꽃 잎을 적시며 세상의 풍요함을 공급하고 있으니 새날을 맞이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새희망을 꿈꾸는 풍요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있어 걱정과 공포 속에서 좌절하기보다는 그 사회의 비리의 근본을 캐고 고통을 해결하는데 솔선하고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와 온유 가운데 희생과 양보로 사람을 모으며 더 자라나는 관약의 후예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시안(Xian)을 다녀와서 ① / 여행기 /

중국은 참 넓다. 2천년도 초입에 업무차 텐진에 한번 들렀고 또 광둥성 박람회 2번 참가했다. 그땐 관광은 엄두도 못낼 업무 여행이었으니 실재는 2003년 가족끼리 북경 관광과 상해를 다녀 본 것이 전부였다.

어찌다 2016년에 10년짜리 중국 비자를 받으니 마음이 달라졌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실크로드를 가보기로 작정했는데 여러 여행객들의 후기를 읽어보니 아직도 중국은 언어소통이 큰 문제이고 대도시를 벗어나면 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혼자 배낭여행을 하면 시행 착오를 많이 겪어서 하루에 관심 유적, 유물은 겨우 한 개 정도 관람하는 게 고작이라는 말이고 Traveler가 느끼는 여행자다운 감정, 여유 이런 것은 없고 안전까지 문제일 수 있으니 차라리 패키지 투어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불교 성지 순례팀'에 끼어 출발할 수 있었다. 베트남 관광을 마치고 인천공항 1터미널에 6시쯤 도착



신규천 (상대 73)

해서 다시 2터미널로 이동하여 나를 기다리는 여행 인솔자를 겨우 만날 수 있었다. 가득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 하노이 출발이 늦어져서 비행기 안에서 안절부절하였는데 비행기가 과속(?)을 하였는지 도착해보니 15분밖에 늦지 않았다. 세상 일은 가끔 끝까지 기다리며 대처하는 여유가 필요한데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조급한 마음이 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많은 마음의 수련이 필요한가 보다.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실크로드를 미리 봤던 나는 중국 쪽에서의 실크로드의 모습이 항상 궁금하였다.



#1 공항에 도착해보니 예상 외로 사람들이 많지 않아 이민국, 통관 수속이 예상보다는 훨씬 일찍 빠져 나올 수 있었다.



#2 1시간의 시차로 인해 도착시간이 아직도 12시가 되지 않아 시안 공항을 빠져 나와 점심 식사 후 버스로 이동하여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진시황 병마용갱을 관람했다. 실제 서있는 모습은 더 생생하게 느껴졌고 진흙에서 빛은 모습에서 군인들의 상세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당대의 제조, 조각 기술에 감탄할 따름이었다.



#4 다시 이동하여 진시황제의 능이라고 하는 곳을 멀리서 관람하였는데 아직도 능을 파헤치지 않는 이유가 왕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 과다 사용했을거라 생각되는 수은이 공중에 노출될 경우 이 지역 전체가 오염되기도 하거나 무덤 개발을 늦추는 것은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려는 이치와 같이 파손되지도 않은 무덤을 일부러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지혜일지 모르다.



#3 다시 차를 몰아 중국 황제들의 온천 휴양지이자 당현종과 양귀비 일화로 유명한 화징지 로 향했다. 현명했던 현종이 절세의 미인인 양귀비에 빠져 국사는 뒤로 하고 자신을 통제치 못하고 국민과 나라를 피폐케 했으니 지도자로서의 자세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아마 충신이 많은 강정을 했음에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



#5 다음날 일찍 서둘러 당고종이 어머니를 위해 세웠다 대자은사에 도착하니 토요일인데도 사람들이 별로 없어 여유를 가지고 절을 둘러 보고 그 안에 있는 현장법사가 경전을 보관하기 위해 세웠다는 대안탑 까지 둘러봤다.



#6 현장법사가 출입했다는 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 보며 천수로 떠났다.

이재진 교수 'Reagan Face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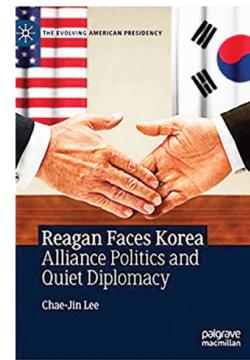


이재진(문리 55)

이재진 교수는 최근 레이건 대통령의 한반도정책에 관한 저서를 출간 하였다. 이재진 박사(문리대 정치학과 1955년 입학/ 논설위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클레어몬트 맥키나대학의 국제정치학 석좌 교수 및 명예교수이다. 그의 11번째 영문 저작, '레이건이 만난 한국' ("Reagan Faces Korea: Alliance Politics and Quiet Diplomacy")은 런던 과 뉴욕에 있는 Palgrave Macmillan 에서 출판 되었다. 이책을 쓰기 위하여 이교수는 수년동안 미국과 한국의 방대한 외교사료를 발굴하고 분석했으며 레이건 대통령시기(1981-1989) 한미관계에 직접 관여한 미국과 한국의 수많은 지도자들을 인터뷰 하였다.

이책은 1980년대 미국과 한국이 당면하였던 중요한 역사적 문제 (세번에 걸친 레이건-전두환 정상회담, 레이건의 한국방문, 김대중의 사면과 망명, KAL-007 기적추와 랑군폭파, 과격한 반미운동, 미국문화원의 방화사건, 1987년 민주화운동, 한미무역분쟁, 미국의 대북유화정책등)에 관하여 균형있는 분석 과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한국정치연구의 최고권위자인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이정식명예교수는 이재진교수의 저작이야말로 객관적이고 외교사료에 입각한 흥미진진한 책으로 1980년대 한미관계에 관심이있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서라고 평가하고 "이책은 오랫동안 권위있는 고전으로 남을것이다" 라고 하였다. Orange Coast College 의 저명한 정치학교수 (Patrick Coaty)는 이재진교수의 저서는 현재와 같이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반드시 일독해야 할 책이며 외교사, 한국연구, 민주적 사회변화, 와 미국정치를 이해하기에 유익한 걸작이라고 평가 하고있다.



정홍택 (상대 60)

/ 독후감 /

'류시화' 라는 사나이

-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를 읽고 -

책상 위 커피가 식어버렸다. 글보다 먼저 떠오르는 따끈한 커피 생각이 머리 속 생각의 길을 막고 있다. 부엌에 가서 새로 커피 내려 책상에 앉으니, 이젠 또 웬 일인가. '류시화'는 간데 없고,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가 떠오른다. 이젠 事故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중략)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나를 끝낼 때까지 한번 밀어붙여보고 싶은 것이다 (하략)

이 영동한 시가 생각난 것도 아마 事故가 아닐지도 모른다. 류시화의 책,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에 있어서 일어나고도 하지 않았는가. 안도현 시의 잣대로 '사람 류시화를 대보고 싶어졌다.

나는 류시화 시인과는 일면식도 없지만 책을 읽으며, 한 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내 라는 인상이 든다. 그의 면모는, 그리 깔끔하지도 않고, 잘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수염도 매일 깎지 않고, 머리는 손질 안해 자유형 스타일이 아닐까? 젊은 시절 그는 기독교 신자들에게서 '마귀야, 썩 물러가라!'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장발의' 낫선 자(Stranger)가 여름인데도 검은색 바라리 코트를 입고 광인처럼 중얼거리며 (자신은 시를 외운 것이 고 했다) 거리를 배회했으니 말이다. 다시 말해 그는 안도현의 시처럼 스스로 연탄불이 되어 활활 타 올랐던 것이다. (일 차 합격)

또 류시화는 진리 찾아 세상 끝까지 가는性情의 사람이다. 한 때는 일본의 三行詩 '하이쿠'에 심취하여 일본에 건너가서 새로 언어를 2년 공부하고 한글판 '하이쿠 선집 해설서'를 발간했다. 650여 페이지의 하이쿠 중 그는 보석 하나를 뽑았다.

자세히 보니 냉이꽃 피어 있다
울타리 옆에 (하이쿠의 大家 바쇼의

代表詩)
이 책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에서는 日本 대신 印度에 갔던 이야기를 썼다. '연금술사'의 산티아고가 보물을 찾기위해서 언어가 다른 외국으로 떠났듯, 류시화는 詩的 모험(영혼)을 찾기 위해 수많은 인도행 비행을 타며 말을 배웠다. 산간지역 라다크 지방에서 몇 해를 지냈다고 했다. 진흙 벽돌로 지은 조그만 이층 방에 세들어 살았는데, 있는 것이라고는 나무침대 하나, 간단한 책상과 걸상, 그것이 전부였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산책이었다. 한두 시간을 걸은 뒤, 도랑에 흐르는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아이구 주워라! 이젠 나의 말) 옥상에 올라가 햇볕을 쬐며 책을 읽거나 글을 썼다. 텔레비전도 없고, 전화도 거의 사용된 일이 없었던단다. 그런데도 마음과 영혼이 충만했다고 그는 술회한다. '단순한 생활과 음식이 나를 단순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나를 나 자신(영혼)에게 가까워지게 했다고 썼다. 印度는 류시화에게 세상 끝이었다. '나를 끝 당는데 까지 밀어 붙여... (안도현) (이 차 합격)

이 글을 써내려가며 내 가슴도 조금씩 (안도현의 연탄처럼) 타오르기 시작한다. 무심코 커피잔을 입에 가져간 다. 또 까맣게 식었다. 가슴의 열기로 커피를 달일 수는 없을까? 책 어디에도 류시화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말은 없었다. 참 안됐다. 이 씹살함 속에 숨어있는 새콤달콤한 커피의 깊은 맛을 모르다니. 어떤 사람은 커피를 가리켜 '악마의 石油'라고 하지만, 내게는 '靈感의 藥水'이다.

내가 글 쓸 때마다 커피에 목말라 하듯, 류시화는 '그대에' 같음을 느꼈다. 그의 첫번째 시집명(名)은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였다. 와! 어떻게 이토록 알맞고 예쁜 시구가 나올 수가 있을까? 여기서 '그대'는 누구일까? 앞의 '그대'와 뒤 구절의 '그대'는 동일인인가? 다른 사람일까? 물 속에, 하늘 속에 보일 듯 말 듯한 '그대'.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마음에 품고 사는 류시화에게 자주 여행을 떠났나보다. 부럽다. 나도 어린 시절부터 무언가 그리워, '떠남'의 책



을 골라서 참 많이 읽었다. 엄마 찾아 3만리, 구뱀씨의 행복 여행, 크놀프... 책을 읽으며 꿈은 무엇이 꾸었지만 정작 나만의 '홀로 여행'은 감행하지 못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부터 나의 등에는 '예쁜(?) 모범생'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중학 이후는 웃도, 교모도 단정하게 썼다.

퀘도이탈 없이 살아온 결과 내 가슴에는 사회가 주는 각종 훈장들이 주렁주렁 달리게 됐다. 문득 찰스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이 떠오른다. 성탄절 이브, 스쿠루지의 친구 제이콥의 영혼이 찾아왔다. 몸은 온통 쇠사슬에 묶여있었다. 전생의 유업이 사후에서 그를 옥죄었던 것이다. 류시화는 지금의 나를 보고 묻는다. '그 훈장들이 무겁지 않아? 그게 정말 너냐?'

부끄럽다. 그리고 지루하다. 류시화는 名詞로 살지 말고 動詞로 살라고 충고했다.

내가 규정지는 한정된 '나'에게서 벗어나 그때그때 역동적인 존재로 살면 어떠냐고.

끝으로 류시화는 또 내게 물었다. '죽는 것이 무서운가?' '죽음이 두렵다면 영혼을 생각하라고 말한다. 영혼은 영원하니까. 자신을 '영혼을 가진 肉體'로 보지 말고 '육체를 가진 靈魂'을 자각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영혼을 돌보라고 했다. '돌본다는 것은 자신의 내적 삶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라고.... 하루 빨리 명상공부를 시작해야겠다.

커피가 또 식었다. 이젠 그래도 괜찮다. 지금 내 가슴 속에는 '악마의 石油'가 뜨겁게 솟구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강은규 (농대 95)

/ 주식이야기(하) /

절대로 지지 않는 게임의 조건

<지난회에 이어서>

우리가 좋은 투자를 찾고자 할 때 신중히 검토하는 것은 연 수익률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1월 1일에 투자를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매각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연 수익률은 어떤 투자자가 투자한 특정 시점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해 낼 수가 없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에 대해서 더욱 명확한 설명이 가능한 특별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소개할 것인데, 대부분의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투자 전문가들조차 이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거나 투자 옵션 선택시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Maximum Drawdown

투자 위험을 더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 중에 Maximum Drawdown (MDD)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일정 기간동안 투자대상의 가격이 최고 가격에서부터 최대로 얼마만큼 하락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일정 기간동안 얼마나 많이 잃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앞의 사례에서 옵션들마다 달랐던 '최대 가격 하락률'이 바로 이 MDD를 의미하는 것이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S&P 500 변동률 보면 이 기간 사이의 MDD는 2000년 3월 24일부터 2002년 10월 9일까지 기간 동안의 최대 하락폭인 -49.15%와 2007년 10월 10일부터 2009년 3월 9일 사이의 최대 하락폭인 -56.7%로 정될 수 있다.

그러면 실제 현실에서 MDD가 어떻게 전체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 표는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10%이상 되었던 MDD들을 분석한 것이다.

| 년도 | S&P 500 수익률 | MDD 기간 | 최대 하락률 (MDD) |
|------|-------------|---------------|--------------|
| 1998 | 28.34% | 7/14 - 8/31 | -17.94% |
| 1999 | 20.89% | 7/13 - 10/11 | -12.08% |
| 2001 | -11.85% | 1/23 - 9/17 | -28.72% |
| 2002 | -21.97% | 1/3 - 9/30 | -31.74% |
| 2003 | 28.36% | 1/15 - 3/11 | -14.05% |
| 2007 | 5.48% | 10/10 - 11/26 | -10.09% |

| | | | |
|------|---------|-------------|---------|
| 2008 | -36.55% | 1/2 - 11/20 | -48.76% |
| 2009 | 25.94% | 1/7 - 3/9 | -27.62% |
| 2010 | 14.82% | 4/24 - 7/2 | -15.99% |
| 2011 | 2.10% | 5/2 - 10/3 | -19.39% |
| 2012 | 15.89% | 4/3 - 6/1 | -9.94% |
| 2015 | 1.38% | 7/21 - 8/25 | -12.25% |
| 2016 | 11.77% | 1/2 - 2/11 | -10.51% |

투자자들이 펀드에 투자하기 위하여 검토할 때 보게 되는 수익률은 왼쪽의 'S&P 500 수익률'이다. 만약 투자자들이 여러 펀드들을 비교한다면, A펀드와 B펀드의 지난 10년간 매년 누가 더 많이 수익을 냈는지, 손실은 몇 번이나 났는지, 그리고 10년의 평균 수익률은 어느 펀드가 높은지...와 같은 식으로 비교를 할 것이다. 그런데 표의 오른쪽 자료들을 한 번 살펴보자. 이 숫자들은 매해 1년 중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기간의 손실률이다. 이 MDD들이 바로 우리가 매일 실제로 체험하는 위험이다. 다시 말하지만, 늘 1월 1일에만 투자를 시작해서 12월 31일에 처분하기를 반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말 그대로 현실적이지 않다. 그 말은, 모든 투자자들은 각기 다른 시점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체험하는 위험 및 실제 수익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수익률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투자를 했다고 하자. 그 4년간 주식시장은 단 한 번도 손실을 내지 않았다. 그리고 평균 수익률은 무려 14.69%나 됐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연평균 14.69%의 복리로 수익을 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적어도 2013년도에 투자를 하려고 한 사람이 이 통계로 인해 큰 안도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만약 비교 대상이었던 다른 펀드가 같은 기간동안 조금 수익률이 낮았거나 손실을 본 적이 있다면 이 펀드가 더 좋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많이 다를 수 있다.

2009년의 수익률은 25.94%였다. 하지만 MDD는 그 수익률보다도 더 폭이 큰 -27.62%였다. 물론 몇년간 동굴에서 살다가 세상에 나온 첫날에 뉴스도 안보고 무작정 주식에 투자한 경우가 아니라면 2008년 말의 폭락을 보고도 2009년 초

에 마음 편히 투자할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투자 격언에 충실히 따라 폭락할 때가 기회라는 마음으로 당차게 투자를 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다. 또는 2008년 폭락시에 시기를 놓쳐서 본의 아니게 속 썩어가면서 해를 넘겨 장기투자를 하게 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이었다면 -27.62%의 폭락을 견뎌낼 수 있는가이다. 그것도 단 2달동안 일어난 대폭락을 말이다. 누구도 그 하락이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그 사이에 돈이 필요하게 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아무리 생각해도 끝을 알 수 없는 폭락을 다 견뎌내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 수도 있다.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팔고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다시 사면 큰 이익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마음을 조급하게 한다.

어쩌다가 이 시기를 이겨냈다고 하자. 그리고 2010년을 맞이했는데 다시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한다. 2009년만큼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2달 정도 되는 기간에 -16%가량 하락을 했다. 또 고난의 시작이다. 뉴스에서는 연일 비관적인 소식 뿐이다. 가족들이 투자에 대해 물어볼까봐 겁이 난다. 그런데 수익률만 보면 이런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다. 2009년과 2010년은 각각 25.94%와 14.82%라는 매우 훌륭한 수익률을 달성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수익률이 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투자 리서치 회사인 DALBAR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좋은 수익률 행진 속에서도 일반 투자자들이 매우 저조한 수익을 내고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MDD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투자 옵션들을 비교할 때에는 같은 조건이라면 MDD가 적은 투자처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더 좋은 대안이 존재한다면,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의 MDD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원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옵션들 중에서 MDD가 가장 낮은, 즉 감당할 만한 MDD를 가진 옵션을 찾아내야 한다.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MDD가 낮은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아무리 찾아도 감당할 만한 MDD를 가진 투자처를 찾을 수 없거나 정말 원하는 투자처가 있지만 MDD가 높아서 주저된다면, 이제 MDD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www.snuaa.org

제29차 평의원회의

버뮤다 크루즈

서울대 미주동창회

— BERMUDA CRUISE —

에메랄드 빛 물길 가르며 피어 오르는 소통, 화합, 비전

6/25/2020 (목)~6.29 (월) - 4박 5일

| / 여행일정 / | | |
|----------|-------------------------------|----------------|
| Day 1 | Thu New York City | Depart 4:00 PM |
| Day 2 | Cruising / 세미나, 평의원회의 | |
| Day 3 | King's Wharf / Arrive 8:00 AM | Depart 4:00 PM |
| Day 4 | Cruising / 세미나, 평의원회의 | |
| Day 5 | New York City | |

미주동창회(회장 신응남)는 내년 제 29차 평의원 회의의 평의원 및 일반 동문들도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일하면서 즐기면서 하는 이색적인 행사로 4박 5일간의 버뮤다 크루즈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뉴욕 Manhattan Cruise Terminal에서 출발 버뮤다로 향하는 이번 크루즈 여행은 짙빛 에메랄드 빛의 버뮤다 물색을 보며, 선내에서 제29차 평의원 회의와 하고, 미주동문들과 가족들도 함께 참가하여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동문들은 선상에서 자유를 즐기면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수영장, 카지노,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극장 등)을 이용하거나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KING'S WHARF에 내려 근처에 있는 버뮤다의 수도 해밀턴 관광과 유선 관광, 개인관광도 즐길 수 있습니다. 동창회 모임의 목적은 동문간 협동과 친목을 나누며 단합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번 여행은 서울대 미주동창회를 더욱 더 발전시키는 미래를 설계하는 장, 동문간 마음을 나누는 큰 장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동문님들의 참여다 바랍니다.

***추가등록마감 2020년 2월15일**

선착순 50명

\$200 지원

각 지부 평의원회선 동문님께는 선착순 50분께 미주동창회에서 200불이 지원됩니다.

/ 여행비용 /

인사이드 — \$999 (Tax + 항만세 포함) 1인

오션뷰 — \$1,099 (Tax + 항만세 포함) 1인

발코니 — \$1,349 (Tax + 항만세 포함) 1인

참여 문의: 백독자 818-395-1967
동창회 718-463-3131
피터킴 213-388-4000

◆ **예약때 필요한 것**

여권 정보 영문 성함(ID 성함과 동일), 생년월일, 여권 번호, 여권 발급일 만기일 (신청서 참조)

◆ **크루즈타일 때 필요한 것**

시만권자: 여권 영주권자 여권 영주권 한국에서 오신분들: 여권 ESTA사본, 전자항공권사본

*항공료 및 공항에서 승선까지비용은 별도입니다.

*Group 이라 최종 결정을 신중히 하시고 취소가 안됨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성명(한글) 영문이름(English) 생년월일

연락처 Address

Cell

신청캐빈종류 발코니(Balcony) 창문(Window) 인사이드(Inside)

DEPOSIT 예약금 \$ (잔액은 출발 91일 전까지 완납해야합니다)

금액(Total Amount) 납부(Payment) 잔액(Balance)

신청인 는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기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서명하여 확인합니다.

신청인(서명) / / 2019

서울대미주동창회 |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aa.org

크루즈

여행신청서

C R U I S E
R E S E R V A T I O N
A P P L I C A T I O N

신청자 성명(한글) 영문이름(English) 생년월일

연락처 Address

Cell

신청캐빈종류 발코니(Balcony) 창문(Window) 인사이드(Inside)

DEPOSIT 예약금 \$ (잔액은 출발 91일 전까지 완납해야합니다)

금액(Total Amount) 납부(Payment) 잔액(Balance)

신청인 는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기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서명하여 확인합니다.

신청인(서명) / / 2019

서울대미주동창회 |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aa.org

/ 남가주 동창회 산악반 세도나 등지기 /

한발 내딛으면 절벽 아찔 ~ 오싹한 등정



김동근 (공대 60)

캐시드럴 록(Cathedral Rock). 붉은 사암을 밟고 가파른 0.7마일을 오르면 이름 그대로 절벽으로 만들어진 성전 이 모습을 드러낸다. 아래로 천 길 낭떠러지 밑으로 끝 없는 세도나의 평원이 펼쳐졌다. 대부분의 하이커들이 '엔드 오브 더 트레일'이라는 팻말에서 걸음을 멈춘다. 그러나 30년 전통의 남가주 산악팀 대원

들이 여기서 멈출 리가 없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 절벽으로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죽음의 비행을 하게 된다. 그곳에서 모두, 살아 있다는 생명의 고마움을 만끽했다. 세도나의 명소 캐시드럴 록의 절벽. 붉은 땅과 바위. 오래전 물속에 있던 바위들이 산화철로 인해 붉은 색으로 변했다고 그 곳에서 보텍스(vortex)라는 기가 솟구쳐 나온다는데 지구상에서 이런 곳이 드물다.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정신일도 하사불성 염불(?)을 하다보면 몸 안에 기가 스며든다는데... 글썄. 30년 전통의 남가주 산악팀은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세도나의 흥미진진, 모험천만의 트레일 등정이 목표다.

11월 10일 출발해 11월 13일 돌아오는 3박4일의 일정. 정예 멤버 14명. 11명은 15인승 밴을 이용해 합승 출발하고 3명은 또 다른 차로 출발. 로스엔젤레스에서 340마일 떨어진 세도나 남쪽 20마일 지점의 커튼우드(Cottonwood) 라는 아담한 도시로 7시간을 달려 예약된 룩스 버데 호텔에 저녁시간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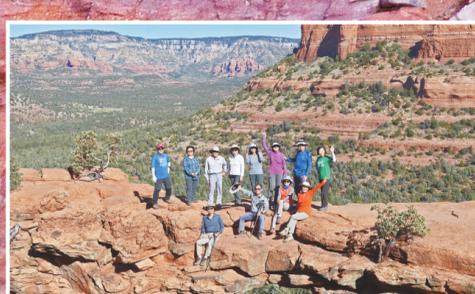
첫째 날 캐시드럴 록 트레킹을 마치고 오후에는 벨 록(Bell Rock) 클라이밍에 나섰다. 길도 없는 바위길을 오르는 것이다. 남녀 대원 모두 60세 이하는 한명도 없는데 그동안의 산전수전(?)으로 단련된 몸으로 좁고 가파른 바위들을 잘도 타고 올랐다.

세도나 트레킹 이틀째. 데블스 브리지(Devil's Bridge)로 향했다. 넘어가는 길이 없는 아슬아슬한 절벽 다리. 떨어지면 지옥이다. 담이 약한 사람들은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하지만 남가주 산악팀은 그 붉은 마귀 돌을 밟고 서서 각종 포즈를 취했다.

세도나 트레킹 사흘째. 윌슨 캐년 트레일(Wilson Canyon Trail). 우거진 숲 속의 개울을 따라 계곡을 오르는, 신선의 길을 갔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다니는 소리. 마른 계곡에 그림자처럼 흐르는 물. 그 캐년 골짜기 정상. 사방이 붉은 암벽으로 둘러싸인 윌슨 캐년의 숲은 세도나의 별미, 트레일 코스이다.

세도나 마지막 날. 아침에 에어플레인 트레일로 올랐다. 보텍스 기가 몰려있다는 곳. 세도나 시가지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트레일 곳곳에서 사람들이 가부좌를 들고 앉아 무언가를 받아 보겠다고 집중하는 모습(조금 안스럽기도 했지만). 남가주 산악반 대원들 중에 과학자들이 많아 (공학박사 2명, 의사 3명) 기에 대해 잠깐 학술적으로 고찰(?)을 한뒤 하산... 그리고 아름다운 세도나의 바위 산들을 뒤로 하고 로스엔젤스 귀환 길에 올랐다. 꼭 다시 올 것을 기약하며.

세도나의 명소 캐시드럴 록의 절벽 끝자락에 다다르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는 모험이다. 남가주 산악팀 "따라하지 마세요."



떨어지면 지옥, 데블스 브리지 위에 선 남가주 산악대원들. "마귀아 물러 서거라"

/ 의학 풀어보기(하) /

잠(Sleep)



천양국(의대 63)

<지난회에 이어서> 수면장애의 진단은 임상적 면담, 수면일지, 다원수면검사(Polysomnogram)를 사용한다. 면담으로 수면 증상, 신체정신, 환경요인, 약물복용 정보, 그리고 잠의 파트너로부터 수면중에 코골이, 빈번한 호흡정지, 팔 다리 차는 운동을 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본다. 1-2주 동안 등의 수면일지를 통해 자고 깨는 시간, 실제로 잔 시간, 낮잠, 잠에 영향을 끼치는 약물, 흡연, 음주 등 수면습관의 규칙성을 알아낸다. 다원수면검사는 수면중 뇌파, 눈 움직임, 근육활동, 잠의 구조와 주기를 알 수 있고 잠자는 사람을 직접 관찰할 기회를 준다. 일반 불면증 진단에는 필요하지 않고 무호흡 수면장애, 주기성 사지운동 수면장애 등 특별한 경우에 사용한다.

30대 중년 여자분이 불면증이 심해진다며 찾아왔다. 일생동안 잠 때문에 고생을 해왔지만 지난 몇 년간 잠들기가 더 어렵고 잠들어도 더 자주 깨었다. 왜 나는 잠을 잘 못자나 하는 걱정을 항상 해왔지만 그때문에 불안증 우울증 강박증 진단을 붙일 정도는 아니었다. 이분의 소원은 잠 한번 시원히 자보는 것이다. 신체질환, 정신적 질환, 약물남용, 일상생활의 큰 스트레스도 없을 때 불면은 계속 일어났다. 잠을 돌기위해 적당한 음주, 처방이 필요없는 약물들을 먹어 보았지만 효과가 별 없었다. 보통 저녁 10시 취침 6시 기상, 8시간 침대에 있지만 실제 수면 시간은 5시간 정도였다. 오늘날 잠을 못자면 내일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낮시간에 깨어있기 위해 하루 4-5컵의 커피를 소비했다.

이 환자 케이스는 일차성 불면증으로 발병율은 전 수면장애의 10%다. 치료는 우선 어떤 행동과 생각이 불면을 일으키는가를 알아내어 잠을 도와주는 인지 행동요법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인지 행동치료는 수면 위생, 자극조절, 수면제한, 사고요법을 이용한다. 카페인 함유 식품 복용을 줄이고, 자기 전 음주는 금한다. 알코올은 잠을 쉽게 들게는 하지만 곧 깨어나 깊은 잠을 못자게 한다. 너무 덥지 않은 방의 온도, 방의 어두움, 편한 잠자리 마련 등 외부 자극을 줄이고 잠 자기 한두시간 전 뜨겁지 않은 물로 족욕을 하여 혈액순환과 기분을 좋게하고, 잠 자러 침대에 가거나 방중에 깨거나 20-30분 이상 지나도 잠들지 못하면 지루한 책을 읽는 등 다시 풀릴 때 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환자의 실제 수면보다 조금 긴 5시간 반으로 줄이고(수면제한), 침대로 가기전 내일 할 일이나 걱정할 시간을 미리 정해주는(사고요법) 방법이다. 침대가 단지 잠자는 곳이라는 정보를 대뇌에 입력시켜 주어야 한다. 우리 몸은 잠들기 전 최소한 15-20분이 소요된다. 늦자마자 자는 것은

절대 건강한 일이 못된다. 몇일 동안 잠이 부족했다거나(Sleep Debt), 몸이 몹시 피로하다는 병적현상의 신호다. 잠을 억지로 자려고 하면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로 오히려 각성상태가 더 유지되고, 내일 할 일을 침대에서 생각하면 스트레스 홀몬인 코티졸 분비로 잠을 더 못자게 만든다.

인지 행동치료는 부작용이 없어 안전하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들어 환자가 불편을 느끼면 약물치료를 한다. 약물로는 Xanax, ativan, valium같은 불안 진정제, 항 히스타민제인 benadryl, Hydroxyzine, 항우울제인 Doxepine, trazodane, remeron, 수면제인 dalmane, restoril 홀몬치료제인 멜라토닌 등이 있으나 잠의 구조와 단계를 해치지 않는 최근에 나온 수면유도제 엠비엔(Ambien)이나 루네스타(Lunesta)가 좋다.

일차성 불면증, 인지 행동치료· 약물치료 병행 수면 무호흡증은 '양압기' 사용이 도움 일주기리듬 수면증/사지운동 장애 등 다양 수면장애 따라 약물사용, 치료법 달라져

잔정제와 예전의 수면제는 오래 사용하면 내성과 습관성, 인지능력 저하, 노인들은 넘어져 뼈가 부러지는 폐단, 항 히스타민제는 인지능력 저하와 아침 어지러움 등의 폐단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지 행동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는게 이상적이다.

등치가 큰 50대 초 남자가 부인의 손에 끌려왔다. 부인은 젊었을때 그대로 참고 살았는데 폐경기가 시작되자 남편의 코골이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불평이 대단하다. 그이가 코를 골면 창문이 들쭉거릴 정도라 이웃이 알까봐 창피했다. 남편은 등을 대고 자는데 매 5-10분마다 숨 쉬는게 안들린다. 그러다 20-30초 지난 후 가슴팍이 부풀면서 숨을 크게 들이 마실 때 어마어마한 소리를 낸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자기집 남자들은 모두 코골이라 했다. 근래는 아침에 일어나도 잠을 잔것 같지않고 직장에서 가끔 졸고 신경질이 많아졌다고 했다.

대표적 일차성 수면장애의 하나인 수면 무호흡증 환자 케이스다. 수면중 10초이상 호흡을 정지하는 횟수가 여러번 나타나면 수면 무호흡증이라 부른다. 보통 체중이 나가는 중년 남성에게 많으나 폐경기 여성에게도 일어나며 집안 내력도 있다. 뇌에 이상이 있거나 저산소증으로 호흡기전이 작용을 못해 생기는 중추성 수면 무호흡과 선천

적 기형, 호흡기관의 장애로 인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으로 나눈다. 거기가 폐쇄성으로 인후부 비대, 인후부 근육의 긴장 완화로 상기도가 막혀 숨이 잠시 맞는 것이다. 진단은 임상면담과 다원수면검사로 쉽게 알 수 있다. 증상은 코를 골며 숨이 막히듯 혈떡이 다 강한 숨을 내 쉰다. 기억, 집중, 부주의 같은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초조함, 신경에민, 불안, 불쾌감, 우울증세 등 심리적 증상도 호소한다.

치료는 등이 아니라 좀 옆으로 비스듬히 자는 수면 자세를 교정해주거나 체중을 줄여주는 간단한 방법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상기도에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양압기계를 주로 사용한다. 공기 마스크를 쓰고 자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효과는 아주 좋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정상적 호흡기전을 저하시

나며 노인들은 초저녁이면 잠들어 새벽 꼭 두각시 같이 깨는 이유도 그래서다. 특히 수면각성 주기는 밝은 빛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일주기 리듬이 바뀌어진다. 몸속의 수면각성 주기가 하루 일정과 맞지 않아 자고 싶을때 깨어있고 깨어 있어야 할때 잠이 오는 수면의 혼란이 생긴다. 교대 근무자, 야간 근무자, 다른 시간대를 지나가는 여행자(Jet lag)들에 흔히 나타난다.

치료는 고통이 심히 따르는 교대 근무자는 직업을 바꾸는게 제일 좋으나 그렇지 못하면 예정된 교대근무 일정에 맞추어 미리 수면각성 시간을 바꿔야 한다. 일정한 시간에 밝은 빛을 쏘이거나 멜라토닌 복용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다. 일반적으로 인체의 일주기 리듬은 주기가 길어지는 방향이 짧아지는 방향보다 적응이 쉽다. 즉 여행할 때 서쪽으로 출발하는 것이 시차 적응에 좋다. 한국에 도착해서는 시차에 별로 고생이 없는데 미국에 돌아와서 오래 고생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환갑이 넘도록 오래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의사 오피스에 왔다. 이유인즉 남편이 자면서 자꾸 발로 차는 바람에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이다.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하지 왜 자면서 나를 치냐고 물으면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단다. 그 일 때문에 싸움도 잦아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자기에게 무슨 화가 나 있는것 같아 의사 앞에서 속 사원이 털어 놓자고 했다.

수면 중 반복적인 팔 다리 근육 운동, 특히 다리 운동으로 인해 잠이 방해되는 질환이 주기성 사지운동 장애다. 이 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여 60세 이상 35%에서 보고되며 노인 불면증의 20-30%를 차지하는 흔한 병이다. 물론 상당수의 노인부부들이 뜰해진 성생활, 소변보러 자주 변소 출입, 코골이, 발차기 때문에 각 밤을 쓰고 있지만 이 부부는 같은 침대에서 자는 모양이다. 원인은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 결핍을 의심하고 있다. 진단은 수면다원 검사로 쉽게 하고 치료는 Clonazepam(항불안제이나 항경련제 효력도 있음), 도파민성 약물인 Requip 등을 써 볼 수도 있다.

비슷한 질환이 하지불편 증후군(Restless leg syndrome)이다. 잠 자리에 들기 직전이나 잠자는 중 다리에 건딜 수 없는 통증과 이상한 감각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 힘들다. 환자들은 다리에 통증, 가려움, 불쾌감, 땀,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등 다양하게 호소한다. 환자의 말을 듣고 쉽게 진단을 붙이나 수면 다원검사로 확인된다. 다리를 움직이거나 주물러 일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약물로는 앞서 말한 Clonazepam, Requip을 처방한다.



박준창 (인문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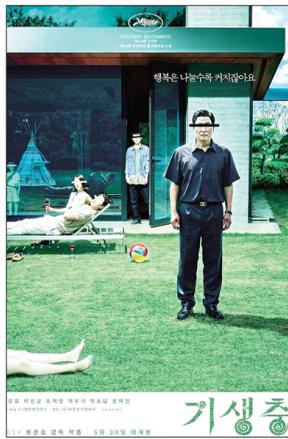


박변의 내멋대로 영화보기

기생충(Parasite)

희·비극을 맘껏 버무린 기괴한 맛의 향연

이 영화는 어느 장르로 놓아야 할지 애매하다. 블랙 코메디라고 할 수 있지만 희극과 비극이 혼재하고, 드라마적, 스릴러적 요소와 기괴함도 있다. 맛으로 표시하자면 대체로 쓴 맛 (비극)이지만 단맛 (코믹, 신맛 (반전), 비린 맛 (쓰레기 같은 저질 인간에 대해 솟구쳐 올라 오는 경멸), 시린 맛 (반 지하에서의 삶, 자식을 잃는 아픔), 짠 맛 (반 지하에서의 삶) 이 다 들어 있다. 냄새로 표시하자면 역하고, 더러운 비린내가 주조다. 주인공 가족들이 사는 반 지하방 생활이 대변해 주는 하층민의 삶에서 나오는 냄새. 그 냄새는 홍수로 인해 반 지하방의 번기가 넘쳐 나는 데서 절정을 이룬다. 영화 후반부 좁은 전임 가정부가 지하실 번기에 대고 구토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반 지하방 번기에서 넘쳐 나오는 오물이 가정부가 토해 낸 오물 같다. 어쩔 수 없는 출구 없는 빈곤의 악순환. 그리고 그 냄새를 못 참는 부자 계급. 결국 냄새 때문에 파국이 난다 (일부 영화관에서는 이제 영화 장면에 맞게 냄새도 나오게 한다니 이 영화가 적격일 듯 하다).



한 사기로. 이렇게 온 식구가 다 이 집에 취직할 때부터 아 이래서 영화 제목이 기생충이구나 느끼게 한다.

그런데, 이 가족의 사기로 출지에 직장을 잃게 되는, 처음 가정부 아줌마가 알고 보면, 먼저 들어 온 기생충이다. 숙주가 전혀 모르는 또 다른 기생충을 기생시키고 있는.

이 영화의 압권은 이 두 기생충 가족이 처음 대면하면서 일어나는 반전과 또 반전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두 기생충 가족 사이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 난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집에 와 보니 온 동



밝게 웃는 기생충 4인 가족. 그들에게도 삶은 있다. 4인의 배우 모두 연기가 자연스럽다.

네가 홍수로 영망이 되어 있다. 땅 위에 있는 집들도 온전하지 않은데 반 지하방이니 방 전체가 물로 다 차 버린다.

임시 대피소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계획이 뭐냐고 물어 오니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은 무계획이다.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되거든. 인생이.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야 돼. 사람은 계획이 없으니까 뭐가 잘못 될 일도 없고. 또 애초부터 계획이 없으니까 뭐가 터져도 상관 없는 거야. 사람을 죽이건 나라를 팔아 먹건. 이 장면에서 신이 인간을 조롱했다는 얘기가 생각난다. "너희들이 계획을 해?" 그러면서 그 계획을 좌절시켜 버렸다는. 글자 그대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한방에 훅 하고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 아닌가?

이런 극빈자들의 재난 앞에서, 대조적

으로 부자의 삶은 계속된다. 철 모르고 순진하지만 한 건축가의 아내 아들들을 위하여 번개 파티를 계획하고 아들과 딸은 파티에 초대 받는다. 결국 모든 가족이 다시 한번 이 집에 오게 된 것. 그리고 비극이 일어 난다.

이 영화 범상하지 않다. 소재 자체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듯 한데 뭔가 꼭 집어 얘기할 수 없지만 평범하지 않다. 코메디 요소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웃을 수 없다. 내가 봉준호 감독의 다른 영화 "살인의 추억" 평에서 봉준호 감독은 중용을 지킬 줄 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뭔가 무거운 주제 임에는 틀림없는데, 두통이 날 만큼 심한 불편함도 없다. 색다른 것 좋아하는 평론가들의 구미에도 맞다. 깐느 영화제 수상작으로서의 스펙을 갖췄다. 한국 영화 이미 외국 영화와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12월 후원자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정희 (음대 56) 손재욱 (가정 77) 강길중 (약대 69) 민준기 (공대 59) 조태환 (상대 56)

곽선섭 (공대 61) 류재은 (미대 71) 이강홍 (상대 60)

중신이사비 이용락 (2차/공대 48)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SNU Alumni Association USA -

2019년 7월 1일 이후, 동창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보내실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payable to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ua.org

중신 이사비 (\$3,000 이상 / 87명)

Table listing donors for the SNU Alumni Association USA, categorized by amount and name.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차 회기: 2019. 7. 1 ~ 2020.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Table listing various contributions and donations from members, including monthly fees, special support, and general support.

| |
|--|
| 남가주 CA |
| 공인회계사 |
|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
| 김경무 (공대 69) 공인회계사 |
| T: 213-616-1390 |
|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
| AAMKO Consulting Co. |
|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
| T: 213-380-3801 |
|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
| 이강원 공인회계사 |
| 이강원 (인문대 76) |
| T: 213-387-1234 |
|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
|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
| 강호석(상대 81) |
| T: 213-380-5060 (LA, CA) |
|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
| STANLEY Cha, CPA |
| 차기민 (공대 85) |
| T: 818-772-2811, 213-272-2460 / jun@junchangcpa.com |
|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
|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
| 임춘택 공인회계사 |
| 임춘택 (상대 68) |
| T: 213-380-4646 |
|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
|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
| 김원철 (농대) |
| T: 213-380-4646 |
|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
| 권국원 공인회계사 |
| 권국원 (공대) |
| T: 213-480-0070 / kkwuncpa@yahoo.com |
| 869 Irolo St., LA, CA 90005 |
| 기계 / 기술 / 전자 |
| Turbo Air, Inc. |
| 서치원 (공대 69) |
| T: 310-719-5422 |
|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
| Tayco Engineering, Inc. |
| 정재훈 (공대 64) |
|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
|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oess, CA 90630 |
| www.taycoeng.com |

| |
|--|
| Leedco Engineers, Inc. |
| 이종도 (공대 66) |
| T: 626-448-7870 / F: 626-448-3955 |
| leedco@aol.com |
| 3870 Baldwin Ave., El Monte, CA 91731 |
| Link TV Media |
| 김원탁 (공대 65) |
| O: 818-514-6780 / M: 818-720-2373 |
|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
|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
| 마켓 |
| Han Nam Chain Market |
| 하기환 (공대 66) |
| T: 213-381-3610 |
|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
| 변호사 |
|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
| 한태호 (인문대 75) |
| T: 213-639-2900 / F: 213-639-2909 |
|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
| www.haanlaw.com |
| 신혜원 변호사 |
| 신혜원 (사대 81) |
| T: 213-385-3773 |
|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
|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
| 이경희 (인문대 83) |
| T: 213-385-IMIN (4646) |
|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
| 부동산 |
| Team Spirit Realty |
|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
| T: 714-396-0624 / jenniedee@gmail.com |
|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
| 식품 / 음식점 |
|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
| 이승훈 (상대 74) |
| T: 562-633-7400 |
|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
| 해태 USA (Haitai Inc.) |
| 정정우 (수외대 74) |
| T: 323-890-0101 |
|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
| 광고주를 모십니다. |

| |
|--|
| 의료 / 병원 |
| Seoul Medical Group |
| 차민영 (의대 76) |
| T: 213-480-7770 |
| 520 S. Virgil Ave., #507, LA, CA 90006 |
| VIP 성형외과 |
| 최광휘 (의대 70) |
| T: 323-965-1717 / F: 323-965-1855 |
|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
| akchoi52@gmail.com |
|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
|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
| Christopher K.Chung MD |
| T: 213-386-5002 / drchung@yahoo.com |
|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
| Beverly Cardiology Group |
| Il Young Kim MD (의대 65) |
| Diana Kim MD |
| T: 323-662-1175 / www.beverlycardiology.com |
|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
|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
| 정수만 (의대 66) |
| T: 714-539-6414 |
|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
| 의료 / 약국 |
| CareMax Pharmacy |
| 유창호 (약대 74) |
| C: 909-229-7777 |
| California Korean-American Pharmacists Asso. |
| Gilbert Pharmacy |
| 최무식 (약대 66) |
| T: 714-638-8230 |
|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
| 나성 약국 |
| 임낙균 (약대 64) |
| T: 213-387-3030 |
| 3030 W. Olympic Blvd., #118, LA, CA 90006 |
| 의료 / 치료 |
| 황준오 DDS |
| 황준오 (치대 73) |
| T: 408-732-0493 |
|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
| Seonho Ha Prosthodontics |
| 하선호 (치대 81) |
| T: 213-365-1008 / ddsstp@yahoo.com |
|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

| |
|--|
| 의료 / 동물병원 |
| Animal Medical Clinic |
| 신동국 (수외대 76) |
| T: 714-990-1411 |
|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
| Francis Animal Hospital |
| 최재현 (수외대 66) |
| T: 909-627-0951 / 909-627-0715 |
|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
|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
| 한상봉 (수외대 67) |
| T: 510-232-3465 |
|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
| Van Buren Animal Hospital |
| 오영문 (수외대 64) |
| T: 951-687-2630 |
|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
| 유통 / 운송 / 원자재 |
| SeAH Steel America, Inc. |
| 이병준 (상대 55) |
| T: 949-655-8000 |
|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
| 자동차 / 서비스 |
| A.P.W. 자동차 부품 |
| 서동영 (사대 60) |
| T: 310-753-9636 |
|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
|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
|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p. |
| 조임현 (간호대 72) |
| T: 213-487-3253 / im.cho@axa-advisors.com |
| 3435 Wilshire Blvd. Suite 2500, LA, CA 90010 |
| Mirae Asset Wealth Mgmt. (USA) Inc. |
| 최경석 (사대 80) |
| D: 213-262-3805 / M: 213-952-9911 |
|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A, CA 90010 |
| kyungsuk.choi@miraeassetusa.com |
| 기타 |
| 한국트로피 / 한국타올사 |
| 박양중 (문리대 61) |
| T: 213-380-2775 |
| 3475 W. 8th St., #100, LA, CA 90005 |

| |
|--|
| ACCU Construction, Inc. |
| 염동해 (농대 74) |
| T: 714-641-4730 |
|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
| 라 캐나다 한인교회 |
| 독곡원 (공대 65) |
| T: 818-790-7320 |
|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
|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
| 이상대 (농대 80) |
| B: 909-882-3800 / C: 714-323-8612 |
|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rdino, CA 92404 |
| 북가주 CA |
| 정보 / 서비스 |
| 두리하나 결혼 정보 |
| 정지선 (상대 58) |
| T: 510-224-0760 / 1durihana@gmail.com |
|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
| www.2makes1.com |
| 뉴욕 NY·NJ |
| 공인회계사 |
| KL CPA & Associates LLC |
| 이경림 (상대 64) |
| T: 212-768-9144 |
|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
| http://klcpagroup.com/klcpa/ |
| 리테일 |
| New York Golf Center |
| 이전구 (농대 60) |
| T: 212-564-2255 |
|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
| www.nygolfcenter.com |
| 변호사 |
| 신용남 변호사 |
| 신용남 (농대 70) |
| T: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
| 158-14 Northern Blvd., 2FL, # UL-2, Flushing, NY 11358 |
| 의료 / 병원 |
| 백승원 위장내과 |
| 백승원 (의대 73) |
| T: 201-302-9774 / 732-744-9090 |
|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
|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
| 석창호 위장내과 |
| 석창호 (의대 66) |
| T: 718-461-6212 |
|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

| |
|---|
| 이창석 내과 |
| 이창석 (의대 72) |
| T: 718-762-4400 |
|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
| 박범열 소아과 |
| 박범열 (의대 75) |
| T: 718-229-1188 / 718-899-4600 |
|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
|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
| 박종호 소아과 |
| 박종호 (의대 79) |
| T: 201-242-1002 |
|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
| 윤세웅 비뇨기과 |
| 윤세웅 |
| T: 718-335-3333 |
|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
|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
| 김치갑 통증병원 |
| 김치갑 (의대 73) |
| T: 201-541-1111 |
|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
|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
| 김승관 (의대 70) |
| T: 718-321-2870 |
|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
| 의료 / 치료 |
|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
| 김성래 (치대 76) |
| T: 201-750-0011 |
|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
| 의료 / 동물병원 |
|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
| 김기택 (수외대 81) |
| T: 201-814-0095 |
|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
| 유통 / 운송 / 원자재 |
| American Int'l Line, Inc. |
| 윤병하 (농대 80) |
| T: 718-995-7060 |
|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

| |
|--|
| 워싱턴 DC MD·VA |
| 기계 / 기술 / 전자 |
| Drivetech, Inc. |
| 엄달용 (공대 69) |
| T: 703-489-2474 |
|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
| www.drivetechinc.com |
| 식품 / 음식점 |
| 우래옥 |
| 백행남 (문리 60) |
| T: 703-827-7300 |
|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
| www.woolaeoak.com |
| 의료 / 치료 |
| 이준영 치과 |
| 이준영 (치대 74) |
| T: 301-220-2828 / 301-926-9692 |
|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
|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
|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
|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
| 정세근 (자연대 82) |
| O: 703-663-8400 / C: 703-785-8467 |
|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
| Fairway Asset Corporation |
| 남옥현 (경영대 84) |
| T: 301-279-6969 |
|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
| www.faclan.com |

| |
|--|
| 필라델피아 PA |
| 건축 |
| Timothy Haahs & Asso. |
| 손재욱 (생활과대 77) |
| T: 484-342-0200 |
|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
| www.timhaahs.com |
| 의료 / 치료 |
| Blue Bell Family Dentistry |
| 김순주 (치대 95) |
| T: 610-278-1110 |
|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
| 식품 / 음식점 |
| 이즈미 일식당 |
| 최중문 (공대 61) |
| T: 267-408-7342 |
|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
| 오레곤 OR |
| 엔지니어링 |
| Flonomix Inc. |
| 박희진 (농대 78) |
| T: 503-648-0775 |
|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
| www.flonomix.com |
| 광고주를 모십니다. |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아래의 주소로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5대 미주동창회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 지역 | 이름 | 전화 | Email | 회계연도 |
|---------------------------|------|-------------|--|----------|
| 남가주 S.CA/NV | 회장 | 한귀희 (미대 68) | 805-300-7977 khahn@4apec.com | Feb-Jan |
| | 차기회장 | 민일기 (약대 69) | 562-547-2110 davidmin920@gmail.com | |
| 북가주 SAN FRANCISCO | 회장 | 임준원 (공대 77) | 408-220-4260 joonwlm@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뉴욕 NY/NJ | 회장 | 조상근 (법대 69) | 201-913-0565 amcoinc@msn.com | July-Jun |
| | 차기회장 | | | |
| 뉴잉글랜드 MA/RI/NH/ME/VT | 회장 | 이강원 (공대 66) | 401-369-1565 kwaynelee@gmail.com | Jul-Jun |
| | 차기회장 | 김정선 (문리 66) | 617-780-7205 jkim@systemic.com | |
| 북텍사스 LA/DALLAS | 회장 | 강성호 (수의 81) | 214-215-4447 oah9999@yahoo.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텍사스 MT/CO/WY/NM | 회장 | 최용문 (공대 77) | ymcgreencorp@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미네소타 MINNESOTA | 회장 | 송세진 (치대 78) | 612-930-7360 sejinsong@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샌디에고 SAN DIEGO | 회장 | 신욱인 (농대 87) | 619-726-7820 wookin.shin@cbpnt.com | Nov-Oct |
| | 차기회장 | | | |
| 시카고 IL/IN/WI/MI | 회장 | 장윤일 (공대 60) | 630-305-8792 ychang@anl.gov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애리조나 ARIZONA | 회장 | 오윤환 (공대 56) | 520-271-2601 youn.oh@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앨라스카 ALASKA | 회장 | 윤재중 (농대 55) |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오레곤 OR/ID | 회장 | 전병택 (상대 65) | bryanchon@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오하이오 OHIO | 회장 | 이성우 (상대 72) |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워싱턴 DC DC/MD/VA/WV | 회장 | 정병희 (공대 71) | 301-661-9227 paulchung5@gmail.com | Jul-Jun |
| | 차기회장 | 박상근 (법대 75) | 703-425-9390 sangkeunpark@gmail.com | |
| 워싱턴 주 WASHINGTON | 회장 | 이명자 (간호 74) | drmiale@gmail.com | Jan-Dec |
| | 총무 | 임현민 (공대 84) |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 |
| 유타 UTAH | 회장 | 김한섭 (공대 93) |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조지아 GA/AL/MS | 회장 | 이영진 (공대 76) | 404-579-8282 youngjinlee9999@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김재호 (공대 80) | 404-372-2621 jhros@gmail.com | |
| 중부텍사스 MID-TEXAS | 회장 | |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필라델피아 PA/DE/S.NJ | 회장 | 조정현 (수의 58) | 856-685-9762 jcac4610@gmail.com | Jul-Jun |
| | 차기회장 | | | |
| 플로리다 FLORIDA | 회장 | 최희덕 (사대 72) | 973-610-5857 lee07073@hot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캐롤라이나 SC/NC/KY | 회장 | 지원식 (공대 85) | 919-913-5570 wschee@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커네티컷 CT | 회장 | 유시영 (문리 68) | 203-305-3910 t60syu@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테네시 TENNESSEE | 회장 | 김상호 (공대 86) | 856-386-1094 kimsh@ornl.gov | Jan-Dec |
| | 부회장 | | | |
| 하와이 HAWAII | 회장 | 성낙길 (문리 77) | 808-956-2611 nsung@hawaii.edu | Jul-Jun |
| | 총무 | 전수진 (석공 89) | 808-956-8283 soojin@hawaii.edu | |
| 하들랜드 IA/MO/KS/NE/AR/OK | 회장 | 이지현 (약대 77) | 913-814-9452 leeche@umkc.edu | Sep-Aug |
| | 차기회장 | | | |
| 휴스턴 HOUSTON | 회장 | 구자동 (상대 70) |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 Jan-Dec |
| | 부회장 | | | |
| 캐나다 밴쿠버 | 회장 | 권오을 (상대 56) | y.kwon@griffith.edu.au | Jan-Dec |
| | 부회장 | | | |
| 캐나다 앨버타 | 회장 | 정중기 (공대 70) | 403-617-7585 movics@shaw.ca | Mar-Feb |
| | 부회장 | | | |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차)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종 (상)
오인환 (문) · 손재욱 (가정)
명예회장: 윤상래 (수)

제15대 회장: 신용남 (농)
고문: 박중수 (수), 주중광 (약)

차기회장: 노명호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부위원장: 조달훈 (사), 박영철 (농)
Corporate Counselor: 최형무 (법)

집행부
사무총장: 이창길 (자연) 대리
총무 국장: 문현호 (음), 간사: 이지희
재무 국장: 한경진 (음)
IT 국장: 이창길 (자연)
업무 국장: 연영재 (공)
섭외 / 홍보 국장: 유시영 (문)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신용남 (농), 편집인: 오치주 (농)
편집 고문: 광상희 (문), 이희만 (간)
편집장: 박정원
편집 위원: 한경수 (문), 주재욱 (의), 최철용 (농), 연봉원 (문)
최한용 (농), 송용길 (신문), 조달훈 (사), 최형무 (법), 이수호 (보)
백옥자 (음), 홍선례 (음), 허유선 (가), 이창길 (자), 문현호 (음)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백옥자 (LA)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김해암 (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장동만 (문),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풍 (법), 연봉원 (문), 이재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홍묵 (문), 김재훈 (공), 김지영 (사), 최형무 (법), 이종호 (인)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중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용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포상 위원회: 위원장 신용남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신용남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감사: 김명승 (상), 강호석 (상)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 투자를 통해 성장한 기업, 미래에셋이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 미래에셋에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다양한 투자 기회를 경험하세요.

Services offered **Wealth Management and Investment Banking**

최경석(사대 80)
상담 및 문의 (213) 262-3800
(213) 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os Angeles, CA90010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is a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This message is solely for informational purposes. Advisory services are only offered to clients or prospective clients where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and its representatives are properly licensed or exempt from licensure. Past performance is no guarantee of future returns. Investing involves risk and possible loss of principal capital. No advice may be rendered by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unless a client service agreement is in place. Member FINRA, SIPC.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하겠습니다!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since 1999

듀오 USA

결혼해 듀오

www.duouus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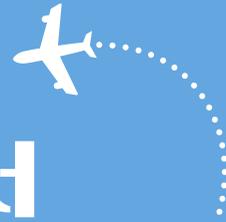
213-383-2525(LA)

201-242-0505(NY)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미주동창회 특별한 혜택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요!



관악캠퍼스 2020 단기과정

* 지원료 60,000원
* 교내외 기숙사 선착순 이용

| 연수 과정 | 연수 기간 | 서류 접수 마감 | 등록금 | 비고 |
|-----------|-----------------|----------|------------|--|
| 3주 | 2월 10일 - 2월 28일 | 1월 10일 | 770,000원 | * 3주 과정 - 주5일, 오전 4시간 한국어 수업 * 5주 과정 - 주4일 오전 4시간 한국어 수업 주1일 한국문화 체험 (판문점, 박물관, 요리체험 등) |
| 5주 | 6월 29일 - 7월 31일 | 5월 29일 | 1,540,000원 | |
| 3주 | 8월 3일 - 8월 21일 | 7월 3일 | 770,000원 | |

* 이외에도 관악캠퍼스에는 정규과정, 저녁반, 15주 과정 등이 있습니다.

시흥캠퍼스 2020 여름 프로그램

* 지원료 60,000원
* 시흥캠퍼스 기숙사 선착순 이용

| 연수 과정 | 연수 기간 | 서류 접수 마감 | 등록금 | 비고 |
|--|-----------------|----------|------------|--|
| 스마트 초단기 한국어 문화과정 (2주) | 6월 8일 - 6월 19일 | 5월 4일 | 1,000,000원 | * 한국어 수업 - 총 6일, 하루 6시간 * 문화 수업 - 총 4일 (K-POP 댄스, K-Beauty, 한국 요리, 태권도 체험 등) |
| | 6월 15일 - 6월 26일 | 5월 11일 | | |
| | 8월 24일 - 9월 11일 | 7월 20일 | | |

* 이외에도 시흥캠퍼스에는 스마트 한국어과정(8주), 진학 목적 한국어 집중과정(7주) 등이 있습니다.

미주동창회 특별 혜택

· 미주 총동창회 추천 우수 동문자녀 장학금
(관악캠퍼스 5주/3주 과정 등록금 전액감면각 1명)

· 미주 총/지역동창회 총 34개 지역 추천 동문자녀 장학금
(각 3인 한정/관악캠퍼스 5주/3주 과정 등록금 10%감면)

지원 : <http://lei.snu.ac.kr>



문의 : 서울대 한국어교육센터 (82-02-880-5488, klp@snu.ac.kr)